

NO. 1 도시 INCHEON

한국으로 들어오는 맨 처음 관문 인천공항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공원 자유공원

한국에 가장 먼저 생긴 초등학교 영희초등학교

관세 행정의 출발, 인천 해관

한국 최초 짜장면 발생지 인천

국내 최초 야구 도입 도시 인천

...

한국 최고의 가치가 바로 인천 최초의 기록

우리의 자부심 No. 1 인천



인천광역시

INCHEON 2016 | 02

인천광역시

굿모닝 인천

02
FEBRUARY
2016

1883년, 인천항을 통해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최초, 최고(最古)의 역사와 문화가 이 땅에서 꽃피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변화의 중심에 선 인천 개항장 일대가 다시 부흥을 꿈꿉니다. 인천시의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이 올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국비 25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인천이 대한민국에 또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킬지 그 앞날을 기대합니다. 사진은 개항기 때 지은 18은행.

- '인천 가치 재창조' 시리즈
그 두 번째 개항창조도시 인천

내 고향 인천항

반야월 작사, 김점도 작곡, 주현미 노래



1. 그리운 내 고향 제물포라 인천항은
오늘도 갈매기들 나를 반겨 노래하네
추억의 자유공원 첫사랑을 맺던 그 밤
행복을 신호하던 월미도의 등댓불아

2. 잔잔한 봄 항구에 입을 실은 연락선은
정다운 뱃고동을 울리면서 떠나가네
송도의 은모래밭 꿈을 심던 젊은 추억
내 사랑 인천항을 나는 나는 못 잊겠네

3. 강화도 부는 바람 수평선을 구기면은
하늘은 장미 구름 파도 소리 함창하네
사랑의 밀월여행 영종도로 도는 뱃길
내 고향 인천항을 임은 영영 잊지 마

80년대 말 트로트 전성기의 주역 주현미 씨가 인천에 대한 노래를 불렀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비록 크게 히트하지는 못했지만, 주현미 씨는 ‘내 고향 인천항’ ‘월미도를 아시나요’ ‘인천항 갈매기야’ 등 인천에 대한 노래를 세 곡이나 불렀습니다. 그중 힘찬 뱃고동 소리로 시작하는 ‘내 고향 인천항’은 1985년 주현미 2집에 실린 노래로, 항구를 이별의 정서로 표현한 일반 대중가요와는 달리, 인천에 대한 사랑과 추억, 그리움을 담았습니다.

※‘인천 가치 재창조’는 삶 속에서도 계속됩니다. 이에 「굿모닝인천」은 올해 ‘인천의 노래’를 연재합니다.

CONTENTS

•

2016 FEBRUARY | VOL.266
INCHEON MONTHLY MAGAZINE



06



28



40

06	우리는 인천 인천역 사람들
12	기록관에서 꺼낸 역사 수인선
16	인천을 즐기다 수인선 여행
20	포커스 사통팔달 철도망
22	인천의 맛 겨울이 달콤한 간식 열전
28	인천은 촬영 중 송도국제도시
32	학교 앨범을 통해 본 인천 이야기 동산고등학교 편
38	2월의 문화 행사

40	인천을 보다 지상 갤러리
44	박물관 이야기 국가문화재 지정 신청
46	NEWS BRIEF
49	IMAGE NEWS
50	COUNCIL NEWS
52	INFO BOX
56	우리 집 앨범 사진사 외할아버지의 가족사랑
58	모닝 커피 한잔 이석주 인천해광학교 교감

굿모닝인천(goodmorning.incheon.go.kr)은 ‘인천시미디어’ 앱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전자책으로도 서비스합니다. 구글플레이 이북, 네이버북스, 인터넷 서점 알라딘, 바로북 등에서 각 스토어의 안내에 따라 뷰어를 설치한 후 보실 수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포합니다. 구독 문의 032-440-8306



인천통통

소식을 전합니다. 생활이 즐거워집니다.

인천이 궁금하다면 인천시 미디어, 인천시 SNS와 통하세요.

인천시는 시민 여러분을 향해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인천시 미디어

인천시 시청소식지 '굿모닝인천'(goodmorning.incheon.go.kr)
인천시 라이브소셜방송 'ON通인천'(tv.incheon.go.kr)
인천시 인터넷신문 'I-View'(enews.incheon.go.kr)
인천시 미디어 블로그 '인천N조이'(blog.naver.com/happyyou)
스마트폰 앱 '인천시미디어'(smart.incheon.go.kr)

인천시 SNS

페이스북(www.facebook.com/flyic)
블로그(incheonblog.kr)
유튜브(www.youtube.com/user/icncityhall)
트위터(twitter.com/Smartincheon)
카카오톡(story.kakao.com/ch/incheoncity)
인스타그램(www.instagram.com/incheon.city)

작은 소리도 크게 듣습니다

시민께서 인천시 종합민원센터 미추홀콜센터를 통해 문의하신 내용과 답변을 모았습니다. 시민의 말씀이라면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 **여권을 만들려고 합니다. 시청으로 가면 되나요?**
시청과 9개 구청에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은 접수일로부터 평일 기준 3일째 오후 3시 이후부터 교부해 드립니다.

☞ **신도림에서 경인선 급행열차를 타고 인천종합터미널로 가려고 합니다. 역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가장 가까운 역이 어디인가요?**
경인전철 1호선 동암역에서 내려 인천종합터미널로 가시면 됩니다. 역에서 택시를 타면 터미널까지 약 15분 정도 걸립니다.

☞ **남구 작전역에서 무의도 선착장까지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가야 하나요?**
작전역에서 무의도까지 가려면, 지하철로 인천공항까지 이동해서 국제공항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잠진도 정류장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여기서 걸어서 20분 정도 걸립니다.

☞ **강화풍물시장, 정상 영업 하나요?**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화요일 휴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화풍물시장(www.gangpoong.com 934-131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가족공원이 오늘 문을 여는지 알고 싶어요.**
쉬는 날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가족공원사업단(510-19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굿모닝인천 마니아

“다양성 품은 인천, 영화에 담고 싶어”

“<골목 살아(사라)지다> 책 한 권 받아볼 수 있을까요? 꼭 부탁 드려요.” 어느 날 <굿모닝인천> 편집실로 시민 한 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인천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집실로 오시면 시에서 발행한 책을 몇 권 챙겨 드리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홍주희(42) 독자님은 자신을 영화 미술 감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인천 사람으로서 인천을 공부해 영화에 스며들게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인천은 다양성이 있는 도시예요. 한 시간 거리의 바다와 섬, 현대적인 송도국제도시, 정감 있는 원도심을 품고 있으니까요. 멀리 가지 않아도 돼요. 동네에 있는 원적산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알고 보니 독자님은 영화 <제보자> <여배우들> <음란서생>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작품에 참여한 영화인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인천의 가치를 알고 관심을 두니,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인천에 대해서는 평소 <굿모닝인천>을 보며 계속 알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에서 발행한 단행본들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라며 소녀처럼 기뻐했습니다. “저는 영화인이기 이전에 인천에서 나고 자란 ‘인천 사람’이에요. 아이 둘을 키우는 ‘인천의 부모’이기도 하고요. 인천에 자부심을 느끼게 해준 <굿모닝인천> 편집실 식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기뻐요. 앞으로도 기대할게요. 파이팅!”



독자 홍주희 (42부평 산곡2동)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굿모닝인천’과 함께하는 독자 여러분을 모십니다. 인터뷰에 참여하신 분께는 작은 선물(온누리 상품권 1만원권 5장)을 드립니다.

문의 440-8305 / goodmorning.incheon.go.kr

797

숫자로 보는 인천

하얀 거품을 잔뜩 묻혀 뽀얗게 만든 얼굴에 날이 선 면도칼을 대고 사각사각 능숙하게 면도하는 모습에 잠시 숨을 고른다. 이발이 끝난 머리를 비누로 박박 문질러 감겨주고 수건한 장 넓게 펴서 젖은 머리를 탈탈 털어 말린 다음, 정성스러운 손길로 꼼꼼하게 스타일을 잡아주던 곳. 그렇게 남자들은 명절 또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이발소를 찾았다. 요즘엔 남자들도 미용실에서 섬세하게 커트를 하지만, 가끔은 조금 무뚝뚝하지만 말하지 않아도 한결같은 솜씨로 스타일을 잡아주던 동네 이발소를 그리워하는 이도 적지 않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발소의 숫자는 어떻게 변했을까? 2015년 말 현재 인천에 등록된 이발소는 797개다. 2005년 558개, 2010년 670개, 2015년 797개로, 줄어든 것 같았던 이발소의 수는 의외로 증가 추세다. 물론, 미용실의 수가 2005년 2천115개에서 2015년 6천211개로 늘어난 것에 비하면 이발소의 증가는 완만하다. 인천시에서 가장 오래된 이발소는 1966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중구 사동에 있는 ‘남인천 이발소’다. 50년간 명맥을 이어온 남인천 이발소의 김성삼 사장은 개업 당시부터 지금까지 한자리에서 이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머리를 깎고,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로 정감 넘쳤던 6,70년대의 향수가 가득한 이발소. 점차 추억 속으로 사라져 가는 이발소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시는 ‘오래된 이발소 살리기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언젠가는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손잡고 이발소로 향하는 풍경을 그려본다.



끝에서 다시 시작, 삶 위안하는 종착역

세상 어디에도 인천 같은 도시는 없습니다.
세계의 하늘 아래 긴긴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땅, 가깝고 아름다운 바다, 그리고
168개의 섬. 하지만 무엇보다 인천을 빛나게
하는 건, 그 안에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당신입니다. 인천이라는 이름으로
너와 나 구분 없이 하나 되는, '우리는 인천'.
아름다운 사람들과 만나 인천의 어제와
오늘을 확인하고 내일을 그려 봅니다. 그
두 번째로, 수도권에서 가장 오래된 전철
종착역인 인천역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사진 김상덕 자유사진가



QR코드를 찍으면
관련 사진을
더 볼 수 있습니다.

경인선 시작과 끝에 다다르다

몹시 추운 어느 겨울날, 경인전철 1호선에 몸을 싣고
길을 나선다. 덜컹거리는 리듬 따라 차창 밖 풍경도
느리고 수수하다. 시간을 거스른 듯한 정취, 사람들
의 표정엔 여유가 흐른다. 보송보송한 1월의 눈과 함
께 인천역에 내렸다. 순간 영화 '철도원'의 한 장면이
그려진다. 하얀 눈으로 뒤덮인 시골 마을 종착역, 평
생 이 역을 지켜온 철도원 오토가 눈송이를 쏟아내
는 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본다. 지난날 잃어버린 소중한
이들을 떠올리며...

인천역은 1899년 9월 18일 경인선 개통과 함께 역사가
시작됐다. 수도권에서 가장 오래된 전철 종착역.
경인선 서쪽 끝까지 달려가야 다다를 수 있다. "이번
정차역은 인천, 인천역입니다." 역사에 울려 퍼지는
안내방송은 때론 시작을, 때론 마지막을 알린다. 열
차는 이 역에서 그날 첫 기적을 울리고 하루 일을 마
친 후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지친 몸을 누인다.

내려야 할 역을 놓치고 안전부절못하는 승객들을 보
듬는 곳, 종착역 인천이다. 주인 잃은 물건들이 험없



수송 담당 역무원 정성연(45) 씨. 석탄을 기차에 실어 전국으로 실어 나른 지 10여 년, 그 역할이 중심에서 밀려나는 현실이 서글프다.



이 쓰러져 있는 모습도 종착역답다. 그들을 챙기는 건 ‘인천역 사람들이다. 청소를 맡고 계신 분들이 텀으로 하는 역할이다. “인천역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10년 전만 해도 일하는 사람도 많고 승객들 인심도 좋았어. 물건 챙겨주면 인사하고, 청소해줘서 고맙다고 음료도 건네고, 지금은 각박해. 일하는 사람이 많이 줄어서 힘들고.” 이한희(56) 아주머니는 인천 토박이다. 10년 넘게 인천역에서 일했다. 처음에는 한 반에 스무 명이 넘었는데, 지금은 한 반에 일곱 명이 2조로 움직인다. 아주머니는 일손이 모자란다며 서둘러 자리를 뗐다.

화물열차는 달리고 싶다

인천역은 초창기에 사람보다 화물을 주로 처리했다. 그러다 1974년 8월 15일에 수도권 전철이 개통됐다. 하루 이용객 8천여 명, 지금도 여객 수요는 그리 많지 않아 화물을 운반하며 먹고산다. 특히 인천항을



▲수인선 시운전 현장에서, 장재영(43) 업무팀장. 인천역은 지금 새로운 변화 앞에서 있다.
◀인천역은 곁에 월미도와 차이나타운만으로도 특별하다.



통해 들어온 석탄을 전국 각지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 기차는 인천역 플랫폼 뒤편 화물열차 노선을 따라 지금도 멀리 충북 단양과 강원도 영월까지 달려간다. 인천역 가까이에 있는 축항조차장에서 정성연(45) 씨를 만났다. 처음 경인선의 부설권을 쥔 미국은 경인선을 우각동역에서 서남쪽으로 이어, 인천역을 현재 축항조차장 인근에 지을 예정이었다. 그는 자신을 인천역 수송 담당 역무원이라고 소개했다. 이삼 년 전까지 만해도 수송원으로 불렸다고 했다. 일제강점기 시대부터 일컫던 명칭이다. 스무 살 때 인천에 들어온 그는 10년 전 시커먼 탄을 묻힌 수송원이 됐다. 연안부두에서 축항과 인천역을 오가며 기차에 석탄과 쇳덩이를 실어 전국으로 보냈다. “당시에는 거의 24시

간 화물열차가 왔다 갔다 했어요. 하루 왕복 20회 이상은 다녔지요. 지금은 8회 정도? 일하는 사람들도 70여 명에서 29명으로 줄었어요.” 석탄과 철강뿐 아니다. 10년 전까지 만해도 열차는 소화물을 싣고 달렸다. 기차가 시골 어머니가 부친 쌀과 각종 살림살이를 인천역 한편에 있는 창고에 싣아내면 사람들이 몰려와 찾아가곤 했다. 지금은 도로교통이 발달하면서 화물 수송 업무가 확 줄었다. 석탄을 배달하는 일은 25톤 거대한 덤프트레이, 소화물을 전하는 일은 택배 회사가 대신한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죠. 내 일이 추억으로 잊히는 현실이 서글프지만 할 수 없잖아요. 수익을 많이 내는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어요. 모두 꺼리는 더러운 벌크 화물은 도로보다 철도를 통해 이동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한때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기여했을지언정, 이제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철도의 수송 환경이 좋아지면 좋겠어요. 경쟁력이 있을지 없을지는 가봐야 알겠죠. 안 그래요?” 되묻는 그이지만, 자신 없는 듯 말끝을 흐린다.

소년, 역무원으로 돌아오다

인천역은 우리에게 단순히 열차가 멈추는 역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곁에 월미도와 차이나타운, 자유공원이 있기 때문이다. 경인선 열차가 이끄는 대로 서쪽 끝 세상에 닿는 순간, 일상을 넘어 여행이 시작된다. 그 옛날 월미도가 유원지로 이름을 날리던 시절엔 너도나도 인천여행 티켓을 끊었다. 한때 앞문보다 월미도 방향으로 난 뒷문이 더 북적이기도 했다. 지금도 여전히 월미도에서는 놀이기구가 뱅글뱅글 돌아가고 낭만이 넘실거린다. 배고프면 차이나타운에서 짜장면 한 그릇 비우고, 좋은 이와 손잡고 걷는 것만으로도 좋다. “어릴 때 가족과 함께 인천역에 와 월미도를 구경하고 차이나타운에서 짜장면을 먹었던 기억이 나요. 한 15년 전인가? 그때는 다들 하인천역이라고 불렀어요. 오래되고 친숙한 느낌이라 그 이름이 좋아요.” 인천





▲인천역의 채상태(52) 역장. 그는 인천역을 거대한 역사(歷史)를 품은 역사(驛舍)라고 말한다.
◀관제를 담당하는 홍성완(54) 팀장. 역무원들에게는 무엇보다 '고객 안전'이 우선이다.

사람들은 인천역 일대를 ‘하인천’이라고 불렀다. 상인천역이라고 한 동인천역의 상대이다. 지금까지도 그리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인천에서 나고 자란 정재형(27) 역무원은 첫 발령지로 인천역에 부임했다. 우리나라 최초로 열차가 달린 역에서 일하게 되어 기뻐한다. 인천에서 50여 년을 산 부모님도 뿌듯해하셨다. 가족과 하인천역으로 나들이 나왔던 꼬마는 이제 어엿한 청년으로 커 인천역을 지킨다.

변화 앞에 선, 오래된 종착역

인천역은 시골 여느 간이역의 분위기를 물씬 풍긴다. 비둘기호가 다니던 시절인 1960년에 지은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예나 지금이나 그 모습 그대로다. 시간을 거슬러 서 있는 역사는 투박하지만 정감 있다. 광장에서 개찰구를 거쳐 플랫폼까지, 길지 않은 거리를 오르내리지 않고 나란히 걸어서 간다. 출구도 단 하

나다. 수도권 전철역에서 이처럼 순수하고 소박한 역사는 없다. 로컬 관제를 담당하는 홍성완(54) 팀장은 인천역에서만 14년을 근무했다. 역에 처음 발령받았을 때가 1998년도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단다. “하인천 쪽은 발전이 더딘 것 같아요. 인구가 줄어드니까 학교도 다 빠져나가고, 수인선을 개통하면 사람도 많이 찾아올 테고 주변 환경도 나아지겠지요.” 그와 이야기를 나누는 내내 기적소리가 울렸다. 관제를 담당하는 역무원들은 인천역으로 오가는 모든 열차에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다.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역무원들에게 낡고 오래된 역은 바꿔야 할 대상이다. 인천역의 채상태(52) 역장은 1989년 처음 철도원의 길에 들어섰다. 인천역과 인연을 맺은 건 지난해 7월, 대한민국 최초의 철도 시대를 연 상징적인 역이기 때

문에 남다른 감회가 있었다. 하지만 막상 와 보니, 역사(歷史)는 거대한데 역사(驛舍)는 보잘 것 없었다. “인천은 우리나라 근대화와 산업화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인천역은 인천의 축소판과 같습니다. 이 역에서 시작한 철도가 전국 각지의 공장을 움직이며 산업화에 기여했고, 그 역할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한결같은 것 같던 인천역에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수인선이 연장 개통하면서 경인선과 환승할 수 있게 됐다. 하나였던 출구는 세 곳으로 늘었다.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작지만 큰 변화가 일어났다. 먼저 외국어를 함께 표기한 크고 번듯한 새 역명표가 시선을 붙잡는다. 마감재와 벽을 보수한 대합실은 한결 넓고 쾌적하다. 삼발이 개찰구가 사라진 자리엔 날렵한 최신형 기계가 놓였다. 공사는 내년까지 계속된다. “인천역의 역사성을 기리기 위해 60년대 근대 건축물의 형식은 그대로 살리고, 고객 편의 중심으로 보수하였습니다. 인천역의 온전한 옛 모습을 그리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인천역을 위해 서라도 꼭 필요한 변화였습니다.”

서쪽 끝 세상, 어머니의 품

인천역은 서쪽 세상의 끝이자 시작이다. 먼 길을 달려온 경인전철이 출발을 알리는 기적소리와 함께 다시 길을 나선다. 그렇게 열차는 쉬지 않고 한 세기 동안 우리 인생 한가운데를 달리고 달려왔다. 인천역 뒤편이 선창가일 때 우리의 어머니들은 큰 함치 박에 생선을 담고 서울 노량진까지 가서 장사를 했다. 열차 안에 비린내가 진동했지만 그 누구도 탓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꾸벅꾸벅 지친 몸을 누이고 직장으로 향하고, 누군가는 책에 얼굴을 파묻고 학교로 갔다. 한편에서는 얼굴에 검댕 묻힌 이가 구슬땀을 흘리며 석탄을 전국으로 실어 날랐다. 인천역은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역이 아니다. 아픈 역사의 상처가 스며있고 삶의 애환이 담겨 있다. 그리고 끝이지만 다시 시작하라고, 어머니의 품처럼 조용히 우리를 보듬어준다.



‘시간을 달리는’ 열차

‘역사는 미래를 보는 거울’이다. 무수히 쌓인 시간의 층을 돌아보며 오늘을 마주하고 내일을 그려본다. 인천시 기록관에서 오랜 세월 소중히 그러모은 역사의 기록을 하나둘 꺼내 선보인다. 잠들어 있던 사진 한 장이 묵은 먼지를 털고 세상의 빛을 보는 순간, 역사는 생명력을 얻는다. 그 두 번째 이야기는, 추억의 철로에서 오늘을 넘어 내일의 ‘시간을 달리는’ 수인선이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사진 김상덕 자유사진가 자료제공 및 협조 인천시 기록관



QR코드를 찍으면
관련 사진을
더 볼 수 있습니다.



1988년 8월 송도역 앞. 1930~70년대 쌀과 소금을 운반하던 기차는 1960~90년대 서민들 삶의 애환을 싣고 달렸다.



송도역삼거리에 남아 있는 옛 송도역과 2012년 6월 수인선 1차 개통 때 지은 현재의 송도역. 2016년 오늘, 웅장한 역사와 플랫폼이 세모 지붕을 인 작은 역사를 대신한다.



1988년 8월 송도역에 도착한 협궤 열차

1937년 아픈 역사에서 시작해, 삶의 동반자로

1937년 8월 6일, 수인선 협궤 열차의 첫 기적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난항으로 대변되는 수인선에는 수탈의 아픈 역사가 깃들여 있다. 일제는 경기도 내륙지역에서 나는 쌀과 인천 염전에서 나는 소금을 빼앗기 위해 수인선을 놓았다. 철길을 따라 우리의 피와 땀이 서린 미곡이 바다 건너 섬나라로 속절없이 흘러들어 갔다. 광복 후에 수인선은 반세기가 넘도록 인천과 경기를 잇는 서민의 발 노릇을 했다. 보따리를 바리바리 싣은 촌로와 달콤한 냄새를 풍기는 취객, 까만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뒤엉켜 덜컹덜컹 인생의 철로 위를 달렸다.



2016년 1월 19일, 인천역 수인선 시운전 현장

그리고 오늘

총 52.8km의 수인선 복선 전철화 사업으로, 2012년 6월 30일 오이도에서 송도 구간 13.1km가 1단계로 개통했다. 그리고 이달 27일 송도에서 인천 구간 7.3km가 지하 전용 여객용으로 개통한다. 끊긴 철길이 열리고 멈춘 열차가 다시 움직이면서, 수인선은 새로운 변화 앞에 섰다. 기차를 타는 건 미지의 세계로 달려 간다는 것, 내일이 기다려진다.

1995년까지 협궤 열차가 다니던 소래포구 철교. 그 옛날 바닷사람과 염전 인부를 실어 나르던 철교 위를 이제 연인과 가족이 손잡고 거닌다. 현재 보수공사 중이다.



오늘날 꼬마 열차는 최신형 전동 열차로, 협궤 철로는 표준궤 철로로 다시 태어났다.

2016년 1월 현재, 소래 철교와 함께 마지막으로 남은 협궤 철교인 원인재 철교. 인천지하철 원인재역에서 승기천을 가로질러 남동공단으로 이어지는 수인선의 철교 구간으로, 레일은 철거됐지만 교각과 철재 상판은 시간을 거슬러 아직 남아 있다.

1995년 꼬마열차 달리던 철길 끊기다

칙칙폭폭 흔들흔들 덜컹덜컹... 수원에서 인천까지 52.8km. 수인선 철로 폭은 76.2cm로 일반 철로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다. 그 위를 달리는 객차도 마주 앉은 승객의 숨결이 닿을 만큼 좁았다. 덩치가 적으니 힘도 달랐다. 고개를 오를 때 손님이 내려서 걷거나 열차를 밀어야 했던 일은, 이제 전설 같은 추억이 됐다. 협궤 열차는 1970년대 교통망이 확충되고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점차 외면받기 시작했다. 그러다 1973년 7월 인천 항만 확장공사로 수원에서 송도 간만 운행하다, 1995년 12월 31일 급기야 모든 구간이 끊기기에 이른다. 그렇게 우리의 '꼬마 열차'는 기억 저편으로 멀어져 갔다.



수원에서 인천까지 52.8km. 우리네 삶의 애환을 실어 나르던 수인선 열차의 어제와 오늘.



2016년 1월 19일, 인천역 수인선 시운전 현장

2016년 2월, 기적 다시 올린다

2012년 6월 30일, 끊긴 철길이 이어지고 멈춘 기차가 달리기 시작했다. 총 52.8km에 이르는 수인선 복선 전철화 사업으로, 송도역에서 오이도역 13.1km 구간을 1단계로 먼저 개통했다. 그리고 2016년 2월 27일, 인천 전 구간인 송도역에서 인천역까지 7.3km를 개통하면서 수인선은 지금 새로운 변화 앞에 섰다. 이제 좁은 선로 위를 뒤통거리던 꼬마 기차는, 최신형 전동차가 되어 쪽쪽 뻗은 선로 위를 내쳐 달린다. 1937년 철도가 놓인 지 80년이 지났다. 아픈 역사에서 시작해 낭만과 추억 속에 있던 수인선이 다시 내일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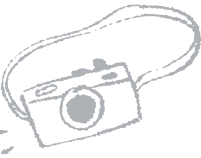
인천을 즐긴다

수인선 여행



인천역

- 차이나타운
 - 자유공원
 - 송월동 동화마을
- 신포역 · 신평국제시장
 - 개항장 거리
 -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7.3km,
‘역사’ 숨쉬는 여행길

추억 속으로 사라졌던 역사(驛舍)들이 다시 살아난다. 과거 수인선의 한 자락에서 한때를 풍미했던 역(驛)들이 새로운 이름으로 탄생했다. 남인천역과 용현역은 각각 송의역과 인하대병원역으로 다시 태어나고, 인천역과 신평역은 과거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역사(歷史)를 전해준다.

글 김윤경 본지 편집위원 사진 김성환 자유사진가



QR코드를 찍으면
관련 사진을
더 볼 수 있습니다.



송의역

- 수인곡물시장
- 인하대병원



인하대역

- 인하대학교



송도역

수인선 인천 구간
2016년 2월 27일 개통(7.3km)

오이도역

현대앞역

(2017년 개통 예정)

수원역

인천역

인천역은 경인선의 종착역이지만, 수인선이 개통하면서 환승역이 되었다. 길 건너편에 차이나타운 입구가 바로 보이는 덕분에 ‘차이나타운’ 역명이 함께 사용된다. 인천역사는 1900년 처음 지어졌고 1960년에 현대식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신축됐다. 경인선에서는 유일하게 60년대식 정거장 건축물이 그대로 남아 있다.



차이나타운

전철을 타고 ‘작은 중국’ 인천 차이나타운으로 여행을 떠나보자. 인천역을 빠져나오면 길 건너 패루와 마주한다. 이곳부터 차이나타운이다. 120년 넘는 동안 화교 고유의 문화와 풍습을 간직하고 있는 차이나타운은 붉은색으로 치장된 골목골목을 들어설 때마다 중국을 여행하는 듯한 기분이 들고, 관광객들로 거리는 활기가 넘친다.

자유공원

차이나타운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자유공원’. 1888년 개항장 조계지 내에 조성된 한국 최초의 서구식 근대 공원이다. 자유공원 위에 올라 서면 인천항의 전경이 시원스럽게 펼쳐진다. 최근 영화 ‘인천상륙작전’ 촬영을 위해 내한한 영화배우 리암 니슨이 맥아더 동상을 보기 위해 자유공원을 찾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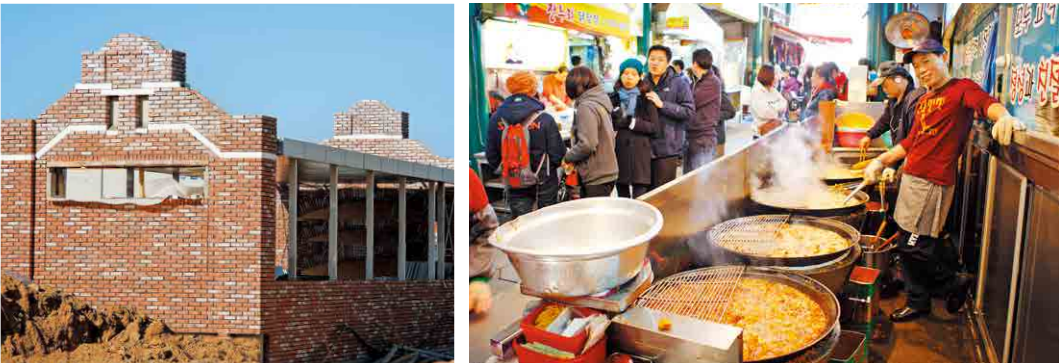
송월동 동화마을

인천역에서 차이나타운을 올라오다 왼쪽으로 꺾어 내려가다 보면 동화마을을 만나게 된다. 알록달록 아기자기한 풍경 속 마을 곳곳에서 누구에게나 익숙한 백설공주, 신데렐라, 헨젤과 그레텔, 오즈의 마법사 등 동화 속 주인공들이 나들이객을 반긴다. 주택가를 가득 메운 동화 속 풍경은 마치 동화책을 읽는 듯 어린아이는 물론 어른들에게도 동심을 불러일으킨다.



신
포
역

신포역은 100년의 역사를 가진 인천항 제1부두 앞에 설치된 정거장이다. 인천 개항장과 함께 근대 인천의 역사가 중첩된 중요한 장소이기도 하다. 1883년 개항한 인천은 외국과의 교역에 관세를 징수한 세관의 역사가 처음 시작된 곳이다. 신포역 출입구가 바로 기존 인천세관부속창고가 있던 자리다. 출구 한 곳은 개항 당시의 모습과 비슷한 근대식 디자인으로 설계되었다. 항만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붉은 벽돌 창고 모양의 출구는 신포역 주변의 역사를 고스란히 전해준다.



신포국제시장

신포국제시장은 19세기 말에 형성되어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유서 깊은 시장이다. 전국 먼 길에서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는 ‘신포닭강정’과 쫄면을 분식의 하나로 탄생시킨 ‘신포우리만두’는 이제 역사를 자랑하는 맛집이 되었다. 이 외에도 7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성광방앗간’과 ‘40년 전통 중국식’ 공갈빵, 오색만두, 수제 핫바 등이 신포시장의 대표 상품이다.

개항장 거리

130년의 역사를 간직한 ‘개항장 거리’. 1883년 개항 후 일본과 중국이 정치적으로 대립했던 공간이자 외국무역의 중심지로 서구문물이 도입되었던 곳이다. 서양식 근대 건축물과 중국식, 일본식 건축물은 물론, 개항기 역사와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박물관도 들어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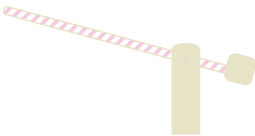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인천공항의 비행시간을 맞추기 위해 공항철도를 이용하는 것처럼, 이제 청도, 상해, 천진, 연운 등 중국행 배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인선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할 듯하다. 신포역 지하 승강장에는 국제여객터미널 부근의 갑문을 모티브로 한 벽화로 장식되어있고, 신포역 출구를 나오면 바로 제2국제여객터미널이 보인다.



승
의
역

승의역은 1937년에 개통해 1973년에 없어진 수인선의 종착역으로, 당시 명칭은 남인천역이었다. 승의역 지하 승강장에는 화물을 수송하는 과거의 기차와 역의 모습이 벽화로 꾸며져 있다.



수인곡물시장

시장 입구부터 고소한 기름 냄새가 가득하다. 고소함에 이끌려 시장 안으로 들어가면 300여 미터 골목에 고추방앗간, 곡물가게들이 다닥다닥 붙어있고, 반대편에는 기름집 10여 곳의 개 볶는 냄새가 시장을 가득 채운다. 협궤 열차를 타고 인천을 오가던 사람들이 역 주변에 좌판을 놓고 콩·좁쌀·수수·들깨·참깨 등의 곡물을 팔기 시작하면서 ‘수인곡물시장’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한때 수인곡물시장은 여주, 수원 등에서도 사람이 몰려들었지만, 수인선 협궤 열차가 끊기고 왕래가 뜸해지면서 화려했던 명성은 점차 희미해졌다. 그러나 여전히 그때를 추억하는 사람들, 품질 좋은 곡물을 사거나 각종 기름을 짜려는 사람들의 발길은 이어진다.

인하대병원

지하 3층·지상 18층 규모, 872병상을 갖추고 있는 인하대병원은 1999년 세계 최초로 루프스 진단방법을 개발했다. 2001년에는 국내 최초로 암 발생 지도를 개발했으며, 인천국제공항에 의료센터를 개원했다. 진료과목은 내과·외과 등 35개이며, 건강증진센터·심장혈관센터·암센터·약물중독센터·여성암 등 전문센터와 당뇨병·통증 등의 클리닉을 운영한다.

인
하
대
역

인하대역은 본래 용현역이라는 이름으로 1965년 영업을 개시했다가 1973년 업무를 마감한 임시승강장이었다. 새로 건설되는 지하 역사는 인하대학교 정문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인하대학교

하와이 동포 이주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세워진 대학이다. 학교명 ‘인하(仁荷)’는 인천과 하와이의 첫 글자를 딴 것이다. 1954년 우리나라의 공업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당시 대통령이던 이승만 박사의 발의로 세워진 인하공과대학이 전신이다.

다시, 인천 철도 시대다!

인천은 대한민국 철도 교통의 중심지다. 1899년 개통한 경인선은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로 근현대 역사의 철로 위를 힘차게 달려왔다. 그리고 지금, 인천 중심의 사통팔달(四通八達) 철도 시대가 새롭게 열린다. 이달 수인선 인천 구간과 인천국제공항 자기부상열차에 이어, 오는 7월 인천도시철도 2호선, 8월엔 월미모노레일이 개통한다. 바야흐로 대한민국 철도 역사가 시작된 그 인천을 중심으로, 철도 시대가 다시 시작됐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1899년 9월 18일, 경인선 개통으로 대한민국 철도 역사의 막이 올랐다. 서울과 인천을 잇는 27km의 경인선은 대한민국 최초 철도로 기록되고 있다. 1974년 8월 15일 수도권이 전철화된 후에는 근대를 넘어 현대 역사의 철로 위를 쉬지 않고 달려왔다. 철도의 발상지인 인천을 중심으로 새로운 철도 시대가 열린다. 시는 그동안 서울 진입을 위주로 설계됐던 교통 체계를 인천 시민을 위한 인천 중심의 독자적인 교통 체계로 촘촘히 구축한다.

수인선 - 경기도와 다가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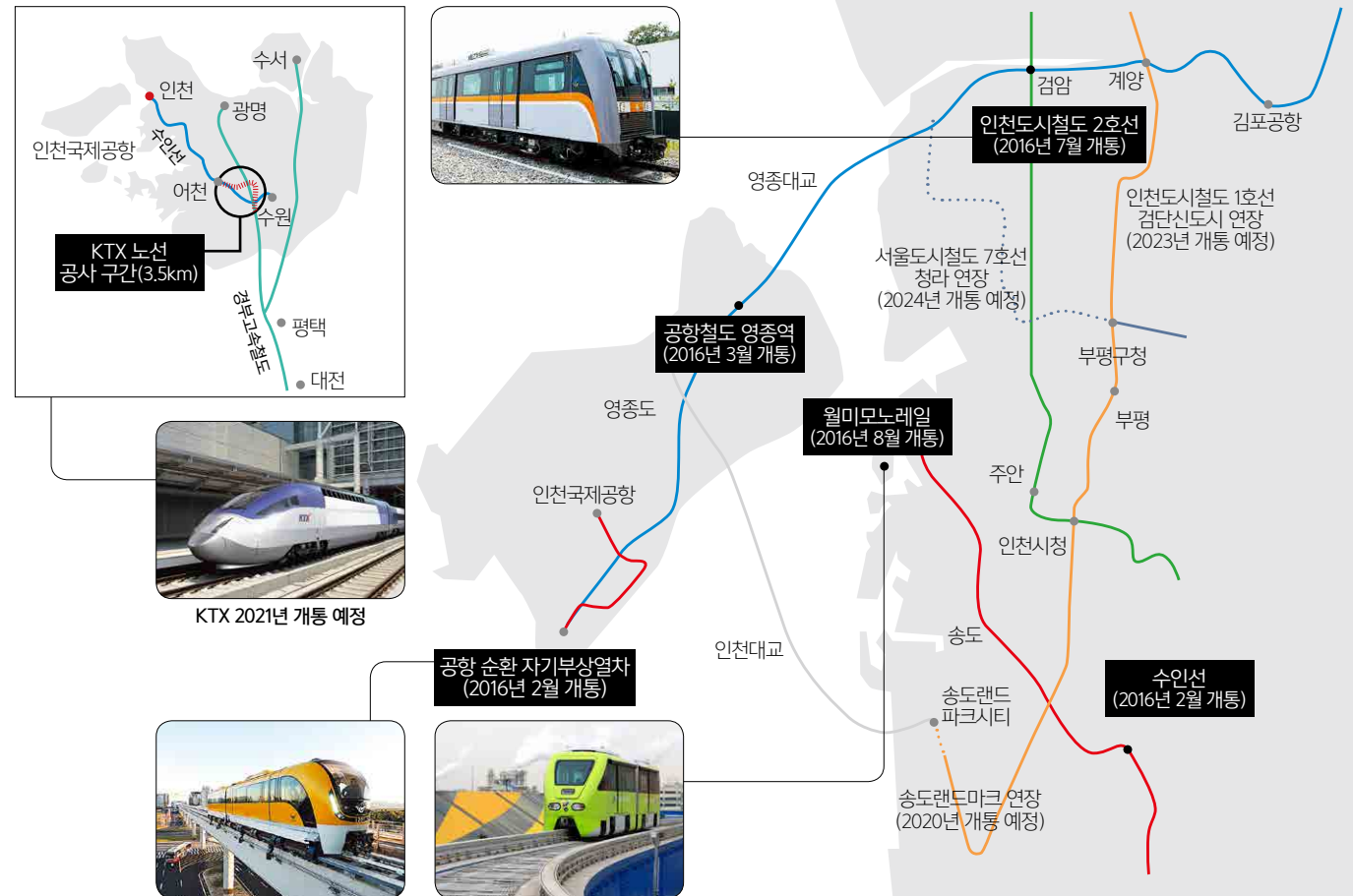
수인선은 인천 남부 지역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노선이다. 1937년 일제강점기 협궤 열차로 개통해 인천과 경기도를 잇는 서민의 발 노릇을 해왔다. 달리던 열차가 멈춘 건 1995년. 그로부터 9년 후인 2004년 수인선 복선전철화 사업을 시작으로 2012년 6월 30일 오이도역에서 송도역을 잇는 13.1km를 우선 개통했다. 이달 27일 완공하는 구간은 송도역에서 인천역을 잇는 7.3km. 이로써 인천 구간이 모두 연결된다. 오는 2017년 한대앞역에서 수원역 구간을 완공하면 인천에서 수원까지 한 번에 가는 길이 열린다.

달라지는 시민 생활

하나 인천은 경인선과 공항철도 등 서울을 위주로 철도망이 구축돼 있었다. 수인선 인천 구간 개통으로 경기도와 거리가 한층 가까워진다. 둘 수인선 역사가 들어서는 남구와 중구 등 구도심의 교통 접근성이 높아진다. 셋 차이나타운과 소래포구 등 인천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가는 교통편이 편리해진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 더 촘촘해진 지하철망

오는 7월,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첫 열차가 달린다. 인천에는 경인전철과 인천도시철도 1호선이 있지만 지하철망이 촘촘하지 않아 이용하기 쉽지 않았다. 인천도시



KTX 2021년 개통 예정



공항 순환 자기부상열차 (2016년 2월 개통)

공항철도 영종역 (2016년 3월 개통)

월미모노레일 (2016년 8월 개통)

수인선 (2016년 2월 개통)

철도 2호선은 서구 오류동에서 남동구 운연동까지 29.2 km 구간이 이어진다. 정거장은 27개로, 이 가운데 16개 역이 서구에 있다. 환승역은 검암역, 주안역, 인천시청역 등 3개 역으로, 검암역은 공항철도, 주안역은 경인전철, 인천시청역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연결된다. 시는 2호선 개통에 맞춰 버스 노선을 전면적으로 개편해 시민의 교통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달라지는 시민 생활

하나 이제, 자가용보다 지하철.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X'축으로 연결돼 철도망이 촘촘해져 지하철로 이동하기 편하고 가까워진다. 둘 인천도시철도 2호선 27개 역 가운데 16개가 서구에 있다. 서구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이 크게 높아진다.

이와 함께 시는 이달 우리나라 최초로 운행하는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를 개통하는 데 이어, 오는 8월에는 인천역에서 월미도를 순환하는 월미모노레일 운행에 들어간다. 특히 인천발 KTX를 올해 국가사업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가사업인 만큼 인천발 KTX 사업에는 기본계획비 국비 35억 원이 반영된다.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2021년까지 인천발 KTX가 개통하면 인천에서 부산 등 전국을 단 2시간 만에 갈 수 있다. 인천발 KTX는 송도역에서 경기도 화성시 어천까지 기존 수인선을 이용하고, 여기부터 정부고속철도까지는 새로 놓인 3.5km의 KTX 노선을 이용한다.



‘인천’ 원조와 ‘전국’ 원조가 모두 다 모였다

쌀쌀한 날, 실내에 머물다 보면 달콤하고 입맛 당기는 먹거리를 자주 찾게 된다.
요즘같은 추운 날 집에서 따뜻하게 보일러 틀어놓고 TV를 보면서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간식은 없을까?
입을 즐겁게 해주는, 추운 겨울을 달콤하게 지겨 줄 전국 대표 간식들을 모아봤다.

글 김윤경 본지 편집위원 사진 김성환 자유사진가



QR코드를 찍으면
관련 사진을
더 볼 수 있습니다.



01 한 끼 식사로 든든한 영양만점의 맛 인천 ‘통계란 영양빵’

2000년대 초 전국적으로 계란빵이 유행한 적이 있다. 부드럽고 달짝지근한 빵 속에 먹음직스럽게 잘 익은 계란 하나가 통째로 들어있는 빵은 한 끼 식사대용으로도 손색이 없었다. 전국적인 열풍이 불면서 계란빵의 시작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진짜 계란빵의 원조는 인천의 ‘원조 통계란 영양빵’이다. 1984년 인하대학교 후문에서 처음 소개된 계란빵은 달콤함과 고소함이 어우러져 주머니가 가벼운 학생들과 일반인들에게 30년 이상 지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계란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밀가루를 주원료로 하는 노란 반죽을 빵틀에 넣고 계란을 한 알 깨뜨려 넣은 후, 그 위에 다시 반죽을 올리고 기계를 돌려 굽는다. 완성된 계란빵을 잘라 보면 계란 한 개가 부서지지 않고 고스란히 익어 있다. 계란의 비릿함이 사라진 고소하고 달짝지근한 빵 맛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건, 주인 할아버지의 10여 년간에 걸친 수많은 시행착오와 노력이 빛은 결과다. 전화번호 하나 없이 장사하지만, 사람들은 용케 원조집을 알고 찾아온다고.

가격 통계란 영양빵 1개 600원
문의 인천 남구 용현동 인하대학교 후문 먹자골목 초입

02 어릴 적 추억 떠올리는 소박한 맛 통영 ‘오미사 꿀빵’

달콤한 팔 앙금을 가득 넣고 튀겨낸 아이 주먹만 한 동그란 빵에 물엿을 입힌 후 깨를 뿌린 통영의 명물, 오미사 꿀빵. 겉은 기름기가 적어 한입 베어 물면 바삭하고 맛탕처럼 달콤하며, 속은 부드럽고 담백한 맛이 가득하다. 팔 앙금의 단 뒷맛 덕분에 향긋한 원두커피나 담백한 우유, 깔끔한 녹차랑 함께 먹으면 훌륭한 디저트나 간식이 된다. 꿀빵은 제빵 기술자인 정원석 씨가 1963년부터 간판도 없이 집 앞 가판에서 배급받은 밀가루로 도넛과 꿀빵 등을 만들어 팔았는데, 그 자리가 오미사 세탁소 옆이라 ‘오미사 꿀빵’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최근에는 팔 앙금 외에도 호박 앙금과 자색 고구마 앙금이 든 꿀빵도 함께 판매하고 있다. 따뜻한 통영 날씨에도 쉽게 상하지 않고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어서 뱃사람들의 간식거리로도 그만이었다. 넉넉히 주문해서 냉동보관 해뒀다가 먹을 만큼만 꺼내 전자레인지에 20~30초간 살짝 데워 먹으면 갓 만들어낸 꿀빵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가격 꿀빵 1팩(10개) 8천 원
문의 통영시 도당로 110 ☎ 055-646-3230, www.omisa.co.kr

03 부드럽고 투명한 얇은 반죽,
그 매력적인 맛
경주 ‘황남빵’



투명하게 얇은 껍질 속에 터질 듯이 꽉 찬 말랑한 팔소가 먹음직스러워 성급하게 손이 먼저 간다. 고소한 빵 안을 달콤한 팔소로 가득 채운 맛이 그만인 황남빵. 일제강점기인 1939년 경주 토박이인 최영화 씨가 처음 개발했다. 당시 빵가게를 처음 열었던 곳이 황남동이었다고 해서 황남빵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물과 가루의 비율을 엄격히 지켜 빛은 반죽에 팔소를 넣어 둥글납작하게 모양을 만든 뒤, 빗살무늬 도장을 꼭 눌러 찍어낸다. 그리고 이를 구워내면 팔 고유의 향이 살아 있으면서 끈적이지 않는 황남빵이 완성된다. 국화빵과 흡사한 외형이지만, 일단 손에 쥐어보면 촉촉한 느낌부터가 다르다. 따뜻한 차 또는 차가운 우유와 먹으면 환상적이다. 세월이 지나도 팔 70%, 반죽 30%의 비율을 고집스럽게 유지하는 황남빵은 팔 고유의 단맛이 있지만, 인공 감미료가 들어있지 않아 지나치게 달지 않다고.

가격 황남빵 1팩(20개) 1만 6천 원
문의 경주시 태종로 783 ☎ 054-749-7000, www.hwangnam.co.kr



04 접시에 담아, 찌어 먹고 말아 먹는 재미
군산 ‘중동호떡’

얼핏 보기에 중국식 호떡을 연상시키는 중동호떡. 1943년 시작해 3대째 내려오는 중동호떡은 기름에 튀기지 않고 화덕에 구운 빵처럼 쫄깃해서 씹히는 맛이 일품이다. 바삭하고 담백한 피가 특징인 중동호떡의 소는 계핏가루처럼 강한 향이 아닌, 흑설탕만을 넣어 만든 달콤한 시럽이다. 특히, 군산 특화 농산물인 흰찰쌀보리와 블랙푸드 선식을 가미해 더욱 고소하고 담백한 맛을 느낄 수 있다. 예전 방식과 전통만을 고집하는 중동호떡의 시럽은 지나치게 달지 않아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 간식으로 자주 찾는다고. 주문하면 접시에 받쳐 나오는 중동호떡은 주인이 알려주는 맛있게 먹는 방법이 따로 있다. 호떡을 손으로 덥석 집어서 먹으면 뜨거운 시럽이 주르륵 흘러내릴 수 있다. 이 때문에, 먼저 집게로 호떡 윗부분의 피를 살짝 떼어 안에 든 시럽에 찍어 먹고, 아랫부분은 돌돌 말아서 먹는다. 그러면 깔끔하게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한결같은 맛을 유지하는 중동호떡은 먹을수록 입맛이 당기는 고유의 소박한 맛이 자랑이다. 그래서 군산의 중동호떡 가게는 번호표를 뽑고 대기할 만큼 항상 손님들로 북적인다.

가격 중동호떡 1개 900원
문의 군산시 서래로 52 ☎ 063-445-0849, kunsan.phps.kr/jungdonghotteok



05 저온에서 숙성시킨 팔 앙금의 깊은 맛
천안 ‘호두과자’

고소하고 은은한 호두의 향과 맛이 두드러지는 호두과자는 과거 철도 이용객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이 애용하면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국민 간식으로 인정받아 왔다. 그래서 어디서나 쉽게 맛볼 수 있다. 하지만, 진짜 호두과자를 먹고 싶다면 천안에 꼭 들러보자.

천안 호두과자는 할머니 호두과자라고도 하는 원조 학화 호두과자에서 시작했다. 1933년 당시 주위 사람들한테서 제과 기술이 탁월하다는 평을 들던 조귀금 씨와 그의 아내 심복순 씨가 처음 만들었다.

학화 호두과자는 밀가루에 계란과 물, 우유, 설탕으로 만든 시럽을 섞어 반죽한다. 앙금에 쓰이는 팔은 붉은 팔과 흰 팔을 가려 쓰고 여러 번 거피해 곱게 갈아 사용한다. 통째로 들어간 큼직한 호두알과 달콤한 앙금이 어우러져 고소하면서 부드러운 맛을 자아낸다. 인공 감미료나 방부제가 전혀 들어가지 않지만, 순도가 높아 열흘이 지나도 쉬거나 상하지 않는다. 물론 실온에 그냥 놔두면 딱딱하게 굳어진다. 이럴 땐 우유에 담가 불려 먹으면 또 다른 맛이다.



가격 호두과자 1상자(20개) 5천 원
문의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590 ☎ 041-567-3370, www.hodo1934.com
천안시 서북구 공단로 80 ☎ 041-583-3372, www.hodoo.co.kr

06 호호 불어가며 먹어야 제맛
안흥 찜빵

찬바람이 쌩쌩 일어야 제 맛을 느낄 수 있는 찜빵. 김이 모락 모락 피어오르는 새하얗고 동그란 찜빵 안에 가득 찬 까만 단 팔 소, 겨울밤 머릿속에 떠오르는 간식거리를 순위로 매긴다면 단연 1순위가 찜빵이다. 찜빵 하나로 안흥을 전국에 알린 ‘안흥찜빵’은 1968년 심순녀 씨가 ‘자식들 배는 굶리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만들기 시작한 찜빵에서 시작됐다. 38~42℃ 내외의 숙성 온도에서 두 번에 걸쳐 발효 숙성시키는 반죽 방법을 50년간 고수하고 있는 덕택에 안흥찜빵의 맛은 차지고 쫄깃하다. 찜빵을 찌고 나면 속의 질감과 달리 껍질이 반질반질해져서 껍질을 흘랑 벗겨 먹는 재미는 모두 정성스러운 숙성 덕분이다. 찜빵 안의 팔소는 충분히 불리고 삶은 것이라 팔 껍질이 주는 이물감도 없고, 팔 알갱이가 있어도 혀로만 누르면 스르르 뭉개지며 부드러운 맛을 남긴다. 인공 감미료를 전혀 넣지 않아 질리지 않는 단맛의 팔소와 쫄깃한 빵이 조화를 이루는 안흥찜빵은 다른 어느 찜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전통의 빵 맛을 자랑한다.

가격 안흥찜빵 1상자 (20개) 1만 2천 원
문의 황성군 안흥면 서동로 1029 ☎ 033-342-4460, www.anhungjbb.com





07 고소함과 먹는 재미가 가득 부산 ‘씨앗호떡’

1996년 국제영화제가 열리면서 남포동 극장가에 비프(BIFF) 광장이 생겼다. 유명한 영화감독과 배우들의 핸드프린트를 볼 수 있는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건 극장이 아니라, ‘씨앗호떡’이다.

부산의 명물 찹쌀 호떡인 ‘씨앗호떡’은 남포동 거리에서 처음 시작되어 유명해졌고, 현재는 부산을 대표하는 토속음식이 되었다. 겉에 담아 건네준 두툽한 호떡 안에 견과류가 잔뜩 들어있다.

뜨거운 호떡을 호호 불어가며 크게 한입 베어 물면 바삭바삭한 빵의 질감과 함께 달콤한 설탕과 단단하고 고소한 견과류의 맛이 입안 가득 퍼진다. 오도독 씹어 먹는 재미에 금세 한입 더 베어 물게 된다. 호떡의 크기는 지름이 약 9~10cm, 견과류 내용물이 알차 간식으로 먹기에 부족함이 없다. 마가린에 두툽한 호떡을 튀기듯 구운 후, 호떡의 반을 잘라 그 안에 설탕과 견과류를 짹 채워준다. 사용되는 견과류는 건포도, 해바라기씨, 아몬드, 호박씨, 땅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격 씨앗호떡 1개 1,000원
문의 부산 중구 비프광장로 30-1



08

강화 인삼과 달짝지근한 고구마 맛이 일품
인천 브랜드 빵 ‘해노랑’

촉촉하고 부드러운 빵의 질감과 함께 달짝지근한 앙금, 인삼의 향긋한 뒷맛이 기분 좋게 입 안을 맴돈다. 통통한 만주 형태의 빵 안에 속노랑 고구마가 앙금 형태로 가득 들어있지만, 인삼 특유의 향이 단맛을 적절하게 잡아줘 깔끔한 맛을 만들어내는 ‘해노랑’.

‘해노랑’은 인천시가 지난 2008년 브랜드 식품으로 출시한 빵으로, 태양과 바다를 동시에 뜻하는 ‘해’와 주재료인 속노랑 고구마에서 착안한 이름이다. ‘박찬희 화과자’를 운영하는 대한민국 제과 명장 1호 박찬희 씨가 강화도 특산품인 ‘속노랑 고구마’와 4~6년근 인삼으로 속을 만들었다.

‘해노랑’은 인삼 먹기를 부담스러워하는 아이들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간식으로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또 방부제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모든 재료를 강화에서 나는 질 좋은 특산품으로 만들어 명절 선물용으로도 손색이 없다.

가격 해노랑 1개 1,500원
문의 인천 서구 장고개로 278 ☎ 032-578-8905, www.hwakwaja.co.kr



인천에만 있다! 새로운 명물의 주전부리~



진짜 대게가 들어 있는 소래포구 대게빵

꽃게와 새우, 젓갈 등으로 유명한 소래포구에 새로운 명물 빵이 생겼다. 진짜 대게 살이 들어간 ‘울진 대게빵’.

대게빵은 울진 대게 가루와 대게 살을 혼합한 반죽에 단팥소를 얹어 대게 모양으로 된 틀에서 구워낸다. 굽는 방식은 봉어빵과 같지만 대게 살이 들어간 그 맛은 먹어보기 전에는 상상하기 힘들다. 진짜 대게 껍질 안에 들어있는 달콤한 머핀과 아이스크림에도 모두 대게가 들어간다.

울진이 고향인 사장이 인천으로 이사 와 2013년 개발한 ‘대게빵’은 소래포구가 본점이고, 울진에 있는 가게가 직영점이다.

문의 ☎ 032-816-5164, www.bkcrab.co.kr



두툽한 고기가 가득 차이나타운 ‘화덕만두’

최근 차이나타운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먹거리는 바로 ‘화덕만두’다. 화덕만두는 향아리처럼 생긴 커다란 화덕 웅기 벽에 붙여 구워내기 때문에 만두피가 마치 빵 같다. 250℃의 화덕 안에서 7~8분이면 구워지는 만두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한 식감을 유지한다. 만두 안은 아주 두툽한 고기로 짹 차 있다. 한입 베어 물면 달짝지근하면서도 고소한 고기의 육즙이 가득 퍼진다. 쫄쫄하고 짹 찬 고기 덕분에 든든한 한 끼 식사대용으로 충분하다. 속에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 고기, 고구마, 단호박, 팔 등 네 종류의 화덕만두 맛을 느낄 수 있다.

문의 ☎ 032-762-5888



연인끼리 재미있게 먹는 ‘돌고래 피자’

최근 관광지로 급부상한 송월동 동화마을. 동화마을과 어울리는 먹거리 ‘돌고래 피자’가 덩달아 명물이 됐다. 돌고래 모양 빵틀에 밀가루 반죽을 넣고 치즈 등의 피자 소를 넣어 구워낸다. 만드는 방법은 봉어빵과 비슷하지만, 얇은 빵 안에 가득 담겨있는 피자소는 촉촉하면서도 쫄깃함이 가득하다. ‘돌고래 피자’는 다 먹을 때까지 따끈한 맛을 유지한다는 장점이 있다.

‘돌고래 피자’는 두 마리의 돌고래가 붙어 있는 모양이라 연인들이 찾는 필수 코스라고.

문의 ☎ 032-761-1791



송도국제도시가 또 한 번 세계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지난해 송도국제도시를 찾은 할리우드 로케이션 담당자들은 아름다운 송도의 도시 경관에 감탄하며 ‘영화 촬영에 최적화된 도시’라고 치켜세웠다. 세계 영화인들도 스크린으로 흠치고 싶어 하는 매력적인 송도국제도시. 이미 영화, 드라마, CF 등 다양한 영상물의 로케이션 장소로 사랑받고 있으며, 지금도 촬영이 한창이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사진 김상덕 자유사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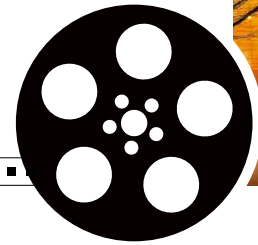


QR코드를 찍으면
관련 사진을
더 볼 수 있습니다.

송도에 가면, 당신도 ‘우산 속 키스’의 주인공



오 마이 비너스



대한민국 이미지 높은 ‘송도스타일’

송도국제도시로 인천이 떴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알고 보니 ‘송도스타일’이었고, ‘런닝맨’이 송도국제도시 곳곳을 누빈 후로, 인천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가고 싶어 하는 한국의 명소가 됐다. 이는 인천에 대한 새로운 각인으로 이어졌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한 도시는, 희색빛 낙후된 주변 도시에 머물러 있던 인천의 이미지를 단번에 바꾸어버렸다.

이 새롭고 번쩍번쩍한 도시는 짧은 시간 안에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는 광고와 뮤직비디오의 촬영지로 딱 맞는다. 아름답고 이국적인 도시 비주얼은 영화와 드라마의 스토리에 영상미를 입혀 작품의 완성도를 높인다. 서울에서 차로 한 시간, 국제공항에서 단 십오 분이면 닿는 가까운 거리도 장점이다.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커널워크, 웨라톤 호텔과 동북아무역센터, 트라이볼



송도국제도시 촬영 명소 체크리스트



송도센트럴공원 우리나라 최초의 해수공원. 공원 한가운데 흐르는 물길을 따라 수상택시와 카누, 전기 보트를 타고 유유자적할 수 있다. 공원내 잘 닦인 길을 따라 자전거 페달을 밟아도 좋다. 공원 안에 예쁜 사슴과 토끼도 더불어 산다. **주요 촬영** 작 영화 열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극적인 하룻밤’, 드라마 ‘후아유-학교 2015’ 등 **문의** 721-4415



G타워 G타워는 GCF(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을 비롯해 GGGI 등 국제기구 사무국들이 둥지를 튼 ‘작은 UN 빌딩’. 인천경제자유구역청도 입주해 있다. 29층에 전망대 하늘정원이, 33층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홍보관이 있다. **주요 촬영작** 드라마 ‘그녀는 예뻤다’ 등 **문의** 032-120

여기서도 ‘송도’ 저기서도 ‘송도’

지난해 겨울, 송도국제도시 거리. 영하로 곤두박질한 기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여기는 SBS 드라마 ‘리멤버-아들의 전쟁’ 촬영 현장. 사람들은 주연 배우인 유승호를 보느라 한겨울 매서운 추위도 잊어버렸다. 드라마 리멤버를 촬영한 송도 거리 외에도, 송도국제도시 곳곳이 뷰파인더 안에 아름다운 영상으로 담기고 있다. 송도센트럴공원이 그 대표적인 장소다. 예전에는 공원 촬영지로 서울 한강공원과 일산 호수공원이 인기였다면, 요즘 대세는 송도센트럴공원이다. 이 공원은 항구도시인 인천의 특색을 살려 우리나라 최초의 해수공원으로 조성했다. 맑은 빛의 물길과 초록 숲, 첨단 도시의 역설적인 어울림은 색다른 운치를 자아낸다. KBS 드라마 ‘후아유-학교 2015’는 송도국제도시에서 주로 촬영했다. 주인공들이 다니는 학교로 해송고등학교가 나왔고, 송도센트럴공원에서도 열여덟 청춘들의 성장스토리가 펼쳐졌다.

가장 ‘모스트스려운’ 도시

송도센트럴공원 물길을 따라 가면 독특한 개성이 살아 숨 쉬는 건축물을 연이어 만난다. 하늘에 닿을 듯한 동북아무역센터, 역설 구조의 트라이볼, 삼각형 아



송도센트럴공원

그녀는 예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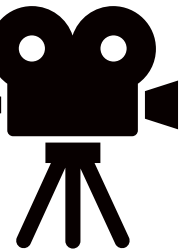


후아유-학교 2015



송도국제도시 촬영 명소 둘러보기

인천지하철 1호선 센트럴파크역에서 내려 센트럴공원을 중심으로 동북아무역센터, G타워, 트라이볼 등을 둘러본다. 문의 인천영상위원회 www.ifc.or.kr 435-7172, 인천영상위원회의 문을 두드리면 인천 지역 세트를 소개받고 촬영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동북아무역센터 305m, 68층 규모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다. 오크우드 프리미어 호텔과 대우인터내셔널 본사가 입주해 있다. 65층 전망대에 오르면 상상을 현실로 일군 인천의 기록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안타깝게도 일반인에게는 개방이 안 된다. **주요 촬영작** 드라마 ‘오 마이 비너스’ 등



트라이볼 365일 공연과 전시가 열리는 복합문화공간. 하늘, 바다, 땅이 어우러진 인천을 상징하는 동시에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영종, 청라의 의미를 품고 있다. 어둠이 내리면 지구에 착륙한 UFO 같은 신비로운 자태로 오색찬란한 빛을 뿌린다. **주요 촬영작** 사이 뮤직비디오 ‘강남스타일’ 등 **문의** www.tribowl.kr 760-1014



쉐라톤 호텔 세계적인 특급 호텔 브랜드인 스타우드 호텔&리조트 가운데 하나로, 이 호텔이 추구하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한결같은 최상의 서비스’는 이곳 송도국제도시에서도 실현되고 있다. **주요 촬영작** 드라마 ‘이혼번호 사는 연애 중’, 영화 ‘검사외전’ 등 **문의** www.sheratonincheon.com 835-1000



캐널워크 ‘NC 큐브 캐널워크’는 유럽형 쇼핑 스트리트다. 쇼핑 테마별로 봄·여름·가을·겨울 네 블록으로 이뤄져 있다. 그 가운데 흐르는 물길을 따라 패션 숍, 레스토랑, 카페 등 특색 있는 매장 340여 개가 줄지어 있다. **주요 촬영작** 개리 뮤직비디오 ‘바람이나 좀 쐬’, 드라마 ‘오 마이 비너스’ 등 **문의** 723-6300

보다 늦어진 것 같다
 힘써 해보려든 것이 이렇게 작으마한 "ALBUM"이었다
 의 성미에 맞게 나 되었는지.....
 후기는 우리편집자들의 사과난 이기도 하다
 선 머슴들의 솜씨였으니 많이 이해 해주기
 바다. 끝으로 친구 여러분들의 건강과 성공
 면서 이만 붓을 놓련다



민족사학에서 야구 명문으로

졸업앨범에는 학교만 있지 않다. 인천도 있다.
 졸업 기념 촬영 때 학교 주변 동네의 풍광이
 종종 카메라에 잡혔다. 교외(校外)에서의 포즈나
 학교 밖의 행사를 담은 사진은 더없이 귀한 인천의
 과거이다. 지역 내 고교 앨범을 통해 수집된
 사진을 통해 인천의 6, 70년대를 반추해 본다.
 그 두 번째로 동산고등학교의 앨범을 들춰 보았다.

글 유동현 본지 편집장
 사진 재촬영 홍승훈 자유사진가



동산고등학교의 뿌리는 인천상업강습회다. 1938년 7월 을목동에 있던 '무덕관'을 빌려 인천상업강습회를 설립했다. 인천 10대 부호 중 한 사람이었던 이흥선을 비롯해 김윤복, 유군성 등이 사재를 털었다. 이는 조선인의 순수 재원으로 운영된 민족사학임을 뜻한다. 동산고는 이를 개교의 시발로 보기 때문에 올해 학교 문을 연 지 78년이 된다.

개교 이듬해 인천상업전수학교로 개편했지만 무술을 연마하는 도장에서 수업을 계속하는 데는 무리가 따랐다. 신축 교사를 짓는데 적당한 대지를 모색한 끝에 1941년 11월 송림동 배밭 9천 917㎡(3천 평)을 매수해 교사를 신축하고 이전했다. 당시 이곳 주변은 과수원, 밭 등이 있던 한적한 교외였다. 이곳이 동산고의 현 위치다.

1942년 3월 7일 무덕관에서 개교와 함께 입학한 120명 중에서 3년 과정을 마친 105명이 졸업했다. 국회 6선 의원으로 국회부의장을 지낸故 김은하 의원 등이 여기에 포함돼 있다.

1946년 동산중학교(6년제)로 교명을 변경해 운영 중 6·25 전쟁을 맞았다. 1951년 전시 중 학생과 교사를 불러들여 수업을 재개할 작정이었다. 그런데 학교는 UN군이 징발하여 차지하고 있었다. 당시 인천에는 성한 건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웬만한 학교는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다. 부득이 신흥초등학교 일부를 빌려서 전시 중 수업을 시작하기에 이른다.

어린 학생들이 밀려들면서 신흥초등학교 교실을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사동 30번지에 소재한 창고를 임대해 교실로 개축하기 시작했다. 피난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학생 수가 갑자기 늘어나는 바람에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신흥초등학교 오른쪽 높은 언덕에 소재한 동본원사 주지스님을 찾아갔다. 연합군이 철수할 때까지 사찰 내에 임시건물을 지어서 얼마간 사용할 수 있도록 선처를 구했다. 사찰 내에 3개 교실과 교무실 등을 축조하고 수업을 실시하였다. 한 동안 불경소리와 책 읽는 소리가 한데 어우러졌다.

1953년 11월 15일 마침내 송림동 교사에서 UN군이 철수했다. 그들이 떠난 자리를 청소하고 수리하는 등 학교를 재정비했다. UN군은 철수하면서 자신들이 건축한 사위장 임시건물을 분해하여 가지고 가려 했다. 학교 측은 그것을 양도받아 그 자재를 사용해 시설물을 건축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드디어 1954년 7월 15일 기교사 목조 양철지붕 7교실을 마련하면서 오늘날 '동산의 기틀'을 마련했다.



동산고등학교 60년대 졸업앨범

황량한 부처산(1956년도 앨범)

학교 뒤편으로 부처산의 모습이 보인다. 일제강점기 때 돌부처 88개가 따리를 들고 있는 일본절이 있었다는 이유로, 혹은 산등성이가 부처 형상이라 하여 ‘부처산’ 혹은 ‘부채산’이라고 불렸다. 6·25 전쟁 후에는 피란민들이 모여 살면서 난민촌을 방불케 했다. 모리스 부호와 진공관 라디오 기술을 가르쳤던 무선학교(현 재능대)의 건물이 들어서기 전의 모습이다.



홍예문에 걸린 영화 간판(1958)

몇몇 학생들은 교정을 벗어나 추억을 담을 수 있는 장소를 고르다가 홍예문을 찍었다. 그들은 돌문 앞에 섰다. 그 너머로 좀처럼 보기 드문 광경이 잡혔다. 돌문 아치 위에 영화 간판이 걸려 있다. 동방극장에서 상영 중인 ‘황혼열차’라는 프로다. 당시 인천에서 이만한 영화 선전(홍보) 장소는 없는 듯하다. 당시 사람들의 왕래도 많았던 곳이다.



희귀한 항공사진(1963)

당시로서는 아주 드문 항공사진이다. 학교가 들어설 때 이 지역은 한가한 농촌 지역이었다. 동산고등학교가 들어서면서 주위가 발전했는데 항공사진을 촬영했던 1963년 학교 주변 모습과 반세기가 지난 현재의 모습은 주택, 도로 등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언덕 위 성채 전도관(1960)

조희 시간, 학교 앞으로 산 하나가 보인다. 초가집들이 납작 엎드린 그 산 꼭대기에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건물 하나가 서 있다. 흔히 ‘전도관’이라 불리는 건물이다. 당시 인천의 어느 곳에서든 볼 수 있었다. 그곳의 주인은 시대에 따라 계속 바뀌었다. 선교사이자 의사로서 초대 주한 미국공사를 지낸 알렌은 1890년 고종황제의 땅 옆에 둥근 돔 스타일의 2층 별장을 지었다. 1907년 알렌은 미국으로 귀국했고 그 자리를 이완용의 아들 이명구가 차지했다. 1927년에는 이 화여전 출신의 이순희 남매가 그곳에 흔히들 개미학원이라고 불렀던 계명학원을 세웠다. 광복 직후에는 서울 한 대학의 분교가 개교하기도 했다. 그 다음은 박태선 장로가 교주였던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가 차지했다. 그 건물을 헐어내고 수많은 신도들의 벽돌을 이고 지고 언덕을 올라 그 자리에 1957년 10월 전도관을 세웠다.



인천의 명물 밴드부(1963)

동산 밴드부는 광복 전 1944년에 이미 조직될 만큼 인천의 명물이었다. 6·25 전쟁으로 30인조 악기는 완전히 분실된 채 흔적이 없어졌다. 밴드부 학생들은 각자 소지하고 있던 악기를 가지고 와 연습하며 다시 밴드부를 조직했다. 이후 동산밴드부는 각종 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등 명성을 이어갔다. 인천신문이 주최한 제1회 경기도 내 초·중·고교 학생음악콩쿠르대회 입상자 발표회 모습 사진이 보인다.

1인용 개인의자 설치한 강당(1963)

학교 직원들은 하천에서 모래를 채취하여 시멘트 벽돌을 만드느라 얼굴이 검게 그을렸고, 학생들도 벽돌을 나르는데 가끔 동원되었다. 그런 노력 끝에 1961년 4월 10일 동산의 강당이 건립되었다. 1층 좌석 800석, 2층 150석, 합계 950석의 웅장한 시설이었다. 인천에서 유일하게 1인용 철재 개인 의자를 설치한 강당이였다. 문화공간이 없던 인천에서 문학제, 연극제, 음악제 등 차원 높은 예술행사가 끊임없이 열렸다.



안익태 선생 연주회(1961)

1961년 5월 24일 강당에서 인천시향 단원들과 함께 강당 낙성을 기념하는 연주회가 개최되었다. 주야 2회를 연주한 음악회는 안익태 선생이 작곡한 Korea Fantasy와 베토벤 교향곡 5번 등이 연주되었다. 이날 안익태 선생의 지휘 하에 온 청중이 기립해서 애국가를 합창해 큰 감동을 자아냈다.



필수과목 교련(1970)

70년대 교련은 고등학교의 중요한 교과목이었다. 1968년 청와대 기습사건을 비롯하여 울진·삼척 등의 무장공비사건 등 북한의 도발이 심상치 않자 1969년부터 고등학교에서 교련이 실시되었다. 남학생들은 교련수업이 있는 날 교련복을 착용하고, 카빈 소총 모형을 들고 제식훈련과 총검술을 배웠다. 여학생들은 제식훈련과 구급법을 배웠다. 매년 송의운동장에 시내 학교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교련실기 대회를 실시했다. 당시 남학생들은 교련복을 지금의 아웃도어복장처럼 활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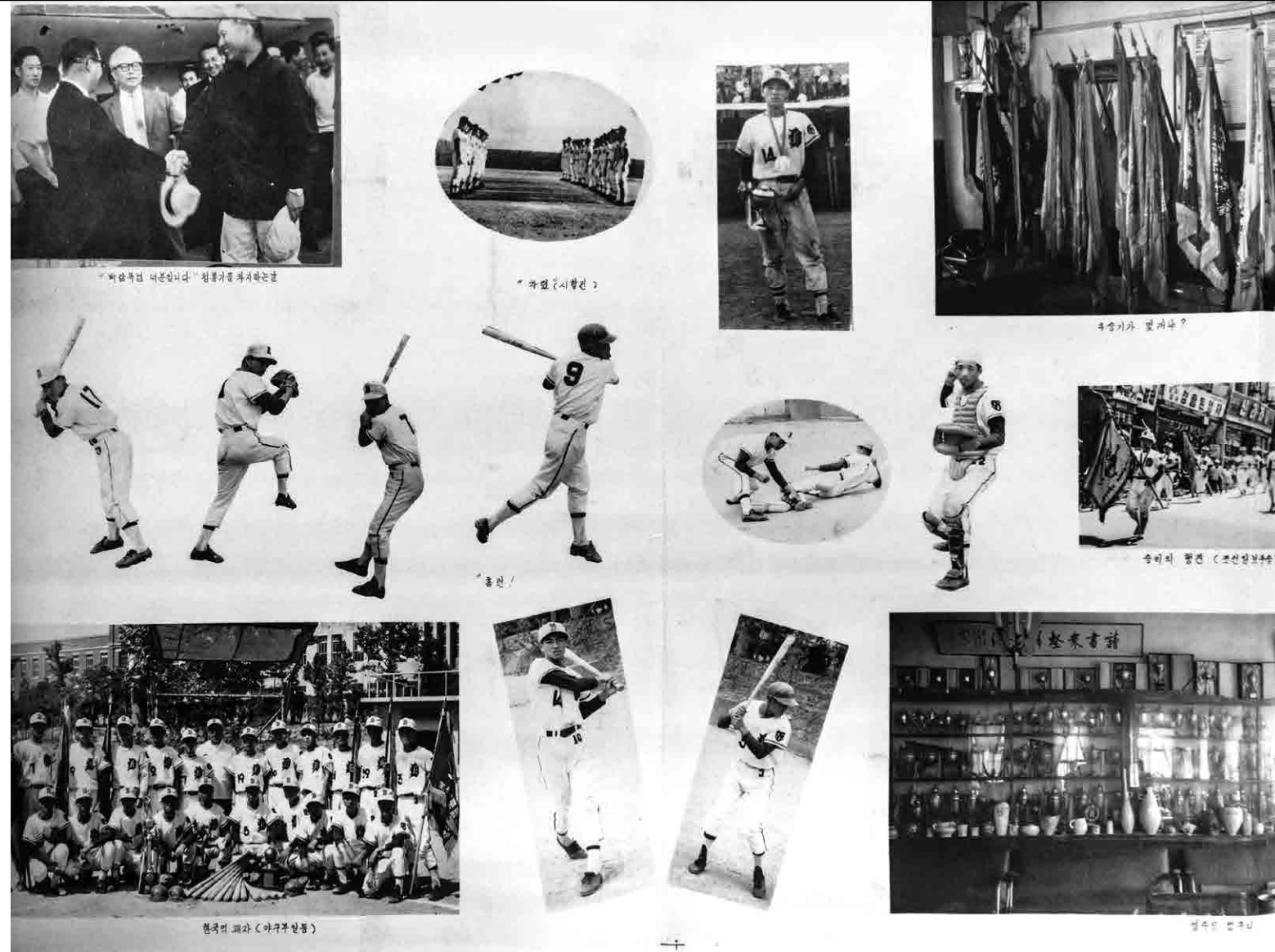
1. 이왕 졸업사진 찍는 거 늘 가고 싶었던 애관극장 앞에서 평소 아껴 입었던 외투를 입고 멋지게 포즈를 잡았다. 디즈니사에서 만든 '백설공주'가 상영 중이고 다음 프로는 '백치 아다다'이다. 그들은 졸업하면 가장 먼저 달려가고픈 곳이 극장이었으리라.(1956)

2. 지금은 폐쇄된 송도유원지에는 보트장이 있었다. 연인들은 물론 소풍 온 학생들은 오리배를 발로 젓거나 작은 보트를 노 저어 타곤 했다. 현재 이 자리는 중고수 출차 하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1974)

3. 원통형의 하얀색 인천기상대는 자유공원의 기념 촬영 포인트였다. 6·25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살아남았던 그 원통 건물은 지난 2012년에 사라져 남은 앨범 속에서만 볼 수 있다.(1958)

4. 인천공설운동장에서 진행된 5·16군사혁명학생축전 대회. 많은 학생들이 각종 구호와 학교 이름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동원됐다.(1963)

5. 6, 70년대 학생들의 취미로는 우표수집이 최고였다. 각 학교에는 특별활동으로 '우취반'이 있었다. 지금은 사라진 인천공보관에서 열린 우표 전시회 모습.(1972)



전국 최강 동산 야구

동산고등학교하면 이제 류현진(졸업 사진)이 떠오른다. 그만큼 야구와 인연이 깊다. 동산의 야구부는 1945년 9월에 창단되었다. 그동안 청룡기 3연패, 청룡기 통산 6회 우승, 전국대회 22회 우승이라는 화려한 전적을 쌓았다. 류현진 뿐만 아니라 박현식, 신인식, 최관수, 정민태, 위재영, 송지만, 송은범 등 수많은 스타를 배출하였다.



02
FEBRUARY

CULTURE CALENDAR



03 수 고금주 피아노 귀국 독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초대
☎ 010-9362-6408
고금주

03 수 제3회 가족 교육극 페스티벌
가족뮤지컬 '황금알을 낳는 오리'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오전 10시 40분
전석 2만 원
☎ 580-1135

13 토 김제동 토크쇼 '노브레이크' 시즌7-인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R석 8만 8천 원, S석 7만 7천 원
☎ 1566-6551

13 토 인음주니어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5시
초대
☎ 888-0808

14 일 김제동 토크쇼 '노브레이크' 시즌7-인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5시
R석 8만 8천 원, S석 7만 7천 원
☎ 1566-6551

14 일 인음청소년 교향악단과 함께하는
2016년 신년음악회 'Shall we Dance?'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5시
전석 1만 원
☎ 888-8770

17 수 2016 커피콘서트2
크리에이터그룹 'Mover'의 '룸(Room)'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전석 1만 5천 원
☎ 1588-2341



17 수 제3회 가족 교육극 페스티벌
가족뮤지컬 '개미와 베히미'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오전 10시 40분
전석 2만 원
☎ 580-1135

20 토 2016 '행복하십SHOW'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사리재홀
오후 4시
학생 무료, 일반 6천 원
☎ 760-3457

20 토 윈드랜드(애니메이션 영화)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다목적강의실
오후 2시
무료
☎ 899 - 1554

24 수 인천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Rainbow Season-Green '모차르티즘'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R석 1만 원, S석 7천 원
☎ 1588-2341

26 금 한울타리-카이 첼리스트 앙상블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이든홀
오후 6시~7시 30분
학생 무료, 일반 6천 원
☎ 010-8845-3374

27 토 2016 버즈 전국투어 콘서트-인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R석 11만 원, S석 9만 9천 원
☎ 02-333-9009

27 토 인천음악협회 초청 테너 전인근 독창회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사리재홀
오후 3시~4시 30분
무료
☎ 514-2426

28 일 2016 버즈 전국투어 콘서트-인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5시
R석 11만 원, S석 9만 9천 원
☎ 02-333-9009



설날·정월대보름 행사

휘영청 밝은 달 보며, 소원 빌다

휘영청 밝은 달을 보며 소원을 빌면 꼭 이뤄질 것만 같다.
인천 곳곳 전통이 숨 쉬는 공간에서 펼쳐는
명절맛이 문화행사를 한데 모았다.

인천도호부청사

조선시대 옛 관아에서 달맞이

인천도호부청사 밝은 달빛 아래서
뜻깊은 시간을 보내자. 이번 행사
에서는 가혼 쓰기, 떡메치기, 연 만
들기 등 전통문화 체험의 장이 펼
쳐진다. 특히 하는 일이 잘되게 해
달라고 신에게 비는 '축원굿'이 열
려 의미를 더한다. 직접 적은 소원
지를 달아 쌓아 올린 달집을 태우
는 행사도 연다.

시간 2월 22일(월) 오전 11시~오후 6시
문의 422-3492

검단선사박물관

“달이 떠오른다, 달맞이 가자”

선사시대 귀한 유물을 간직하고 있
는 검단선사박물관에서 특별한 추
억 만들기. 정월대보름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부럼 깨기'. 대보름 새벽
에 눈뜨자마자 부럼을 깨면, 일 년
열두 달이 안심된다. 행사기간 1층
로비에서 부럼을 나눠준다. 또 하늘
정원에서는 제기차기, 사방치기 등
전통놀이를 즐길 수 있다.

시간 2월 18일(목)~23일(화)
문의 440-6790

인천시립박물관

우현마당에서 달집 태우기

인천시립박물관 우현마당에서는
민속 문화 행사가 다양하게 펼쳐
진다. 이번 행사는 체험마당, 놀이
마당, 먹거리마당, 겨루기마당, 공
연마당 다섯 테마로 진행한다. 또
투호 던지기, 윷놀이, 윷점 등 전통
놀이를 즐길 수 있다. 귀밝이술, 인
절미 등 전통음식을 맛보는 즐거
움도 있다.

시간 2월 21일 오후 1~7시
문의 440-6735

월미공원 전통공원

설날, 전통공원에서 민속 한마당

민족 최대 명절 설, 한국 전통이 살
아 숨 쉬는 공간으로 가자. 설 연휴
기간 월미공원 전통정원 양진당에
서는 민속 한마당이 신명나게 펼쳐
진다. 이번 행사에서는 풍물놀이와
판소리 공연, 연 날리기 등 다채로
운 공연이 흥을 돋운다. 전통 민속
놀이와 가혼 쓰기, 토정비결 보기
등도 특별한 시간을 약속한다.

시간 2월 6일(토)~10일(수)
문의 765-4133

문(門)은 공간의 첫 지점이자 마지막 지점이다.
문은 우리의 공간과 타인의 공간을 가르는 경계다.
문은 시간을 품고 있다. 세월이 지나면서
문도 변한다. 인천의 원도심 동네 대문을 보면
시간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 대문은
그 동네와 그 가족의 이야기를 말해준다.

글·사진 유동현 본지 편집장

인천 이야기 담긴 동네 대문



사진전 '밀門썰門'

일시 2016년 2월 6~21일
(설 연휴 개관)
장소 한중문화관 1층 갤러리
(중구 차이나타운)

개조심과 종교 표찰

문(門)은 개성이고 취향이다. 크기는 천차만별이고 모양은 각양이며 색깔은 각색이다. 집주인은 지붕을 씌우거나 예술품 같은 철 장식물을 올려놓거나 전통 문양 쇠장식을 붙여 놓는다. 대문에는 집주인이 알리고자 하는 각종 정보가 나붙는다. 경사(慶事)와 애사(哀事)의 표시를 대문에 해놓았다. 자식이 태어나면 금줄을 걸었다. 아들을 낳으면 고추와 숯을 매달았고, 딸을 낳으면 흰 종이를 걸어 놔다. 가족을 잃은 슬픔은 '상중(喪中)'을 써 붙여 알렸다. 간혹 '신문사' 절이란 종이 붙어 신문배달 고학생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기도 했고 '사글세방 있음' 쪽지를 붙여놔 가난한 신혼부부의 복비를 절약하게 했

다. 옛날의 '세콤'은 '개조심'이다. 개를 기르던 그렇지 않던 이 집 저 집 모두 대문에 '개조심'을 붙였다. 요즘은 동네 피자집과 치킨집의 전단지 가 대문을 장식한다. 대문에는 행정기관에서 붙인 각종 부착물들이 붙어 있다. 가옥 번호, 수도 번호 심지어 변소 용량까지 적힌 패찰이 붙어 있다. 한때 '신고하는 집'이란 표찰도 붙어 있던 시절이 있다. ○○교회, ◇◇성당, 불자의 집...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 없이 우리나라 대문에만 붙는 것이 종교 표찰이다. 최근에는 '유공자의 집'이란 표찰이 자주 눈에 띈다. 동구 송림동의 어느 집 대문에는 커다란 유공자 상패까지 붙여 놓았다.





집과 함께 늙어버린 사자머리

예전 대문의 필수 장치는 초인종이었다. 동네 꼬마들의 장난 때문에 헛걸음질할 때도 있었지만 초인종이 울리면 반가운 손님을 맞기 위해 혹은 애타게 기다리던 편지를 받기 위해 한달음에 대문으로 달려갔다.

요즘은 대문에 번호기가 달려 있지만 예전에는 잠금장치를 열 수 있는 끈이나 손잡이를 설치했다. 옆집에서 놀러 온 친구나 화장품 파는 아줌마는 이 고리만 당기면 '제 집 드나들 듯' 할 수 있었다. 어둠이 찾아오면 마지막 식구가 들어온 것을 확인한 아버지가 대문을 걸어 잠근다. 잠금장치는 빗장이 전부였다.

옛날 기성품 철 대문에는 'LETTER'라고 쓴 편지함이 뚫려 있다. 왜 굳이 영어로 썼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기도 했지만 비어 있는 것보다 뭔가 들어 있는 편지함의 모습이 좋아 보였다. 편지함이 없는 문에는 나무로 만든 투박한 편지통이 달려 있었다.

슬라브식 양옥집이 유행한 적이 있다. 대부분 '집 장사'들이 대량으로 건축한 이 집의 대문에는 사자 머리가 부착돼 있다. 유럽 어느 귀족의 저택 대문을 흉내낸 것으로 보이는 사자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집과 함께 늙었다. 이제는 이빨 빠진 사자처럼 고리가 성한 게 별로 없다. 견고한 철 고리 대신 늘어진 노끈을 물고 있거나 아예 없는 것이 많아 애처롭게 보인다. '문턱이 닳다' 정말 맞는 말이다. 어느 집 대문을 보면 실제로 문턱이 닳아 깊게 패인 집이 있다. 오대양을 휘감은 밀물과 썰물이 '인천' 문을 드나든다. 육대주를 넘어온 이 바람 저 바람도 그 문턱을 넘나든다. 2016년 인천의 문턱이 관광객과 투자자의 발걸음으로 닳고 닳아 깊게 패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숨겨진 문화재의 새로운 발견

이희인(인천광역시립박물관 유물관리부장)



원대 철제범종



원대 철제범종



명대 철제범종

인천시립박물관은 송암미술관 등 산하 분관을 포함해 3만 점이 넘는 귀중한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은 오랫동안 탈 없이 보존할 수 있도록 온도와 습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수장고에 보관하고, 일부는 전시실에서 빛을 보고 있다. 유물의 종류는 수만년 전에 만들어진 돌도끼부터 최근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 등장한 낫익은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각각의 유물은 겉모습은 물론, 지나온 시간의 깊이와 담겨 있는 사연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사람 사는 세상도 그렇듯 많은 유물 중에서 가치를 좀 더 높게 평가받는 것이 있다.

지난해부터 시립박물관은 소장 유물 가운데 인천의 역사와 예술, 문화적 가치를 담고 있지만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유물을 발굴해 문화재로 지정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첫 결실로 2015년 9월 인천시 문화재위원회는 시립박물관이 지정 신청한 유물 가운데 중국 철제범종과 평양성도, 노송영지도 등 5점을 국가문화재로 지정 신청하고 러일전쟁 당시 인천 앞바다에서 침몰한 바랴크함의 깃발 등 4점을 시 유형문화재로 새롭게 지정하기로 결정했

다. 시립박물관 소장 유물을 국가문화재로 지정 신청한 것은 박물관이 개관한 지 7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에 국가문화재로 지정 신청한 유물 가운데 송·원·명대 철제범종은 모두 중국 허난성(河南省)에서 만들어 사용했던 것이다. 2차 대전 당시 중국에서 일본이 강제로 공출해 부평 조병창으로 옮겨진 뒤 용광로에 녹여지기 전에 극적으로 살아남아 시립박물관에 보관되어 왔다. 이 범종들은 130여 년 전 개항 이후 인천, 더 나아가 한반도가 겪었던 굴곡진 노정을 잘 보여 주는 유물로 단순히 외국에서 만들어진 종이 아니라 우리의 기억을 흠뻑 머금고 있는 인천의 유물이다. 또 범종은 예술적으로도 가치가 있다. 각 시대의 종은 조각 수법이 우수하고 무엇보다 명문이 남아있어 제작 시기와 주조 지역을 추정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중국 대륙 내에도 이와 같이 온전하게 남아 있는 종은 수십 점에 불과해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한편 평양성도와 노송영지도는 시립박물관 분관인 송암미술관이 소장한 작품으로 2005년 OCI가 인천시에 기증한 유물 가운데 하나다.

時間

평양성도

<평양성도(平壤城圖)>는 조선 후기 평양을 담은 지도로서, 8폭 비단 병풍으로 꾸며져 있다. 평양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 한양에 버금가는 도시로 성장하면서 지도와 실경산수화로 자주 그려졌다. <평양성도>를 누가 그렸는지는 알 수 없으나 섬세한 묘사와 채색, 단정한 필치와 글씨, 구도의 합리적인 배치로 미루어 궁중화원에 버금가는 기량의 소유자가 그린 것으로 보인다. 산과 대동강, 북성, 내성, 중성, 토성으로 큰 구도를 잡고, 주요 건물을 그려 넣었는데, 자연물과 건물마다 이름을 적어 당시 평양성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특히, 부벽루(浮碧樓) 앞의 부도, 기사묘(箕子墓) 앞 석수(石獸), 대동문(大同門) 지붕의 잡상(雜像) 표현은 현재



까지 전하는 평양성도 중에서 세부 묘사가 가장 뛰어나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18세기 말 평양에서는 여러 차례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때 애련당(愛蓮堂)과 장대(將臺)가 소실되었다고 한다. 다른 평양성도에는 이 두 건물이 보이지 않

는 경우가 대부분이이나, 송암미술관 소장본에는 애련당과 장대가 그려져 있다. 이로 미루어 <평양성도>는 18세기 말 이전으로 그 제작 시기를 짐작할 수 있다. 이는 현존하는 평양성도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다.

老松靈芝圖

노송영지도

<노송영지도(老松靈芝圖)>는 조선 후기의 거장 겸재 정선(謙齋 鄭敼, 1676~1759)이 늙은 소나무와 영지버섯을 그린 것으로, 세로 147cm, 가로 103cm의 대작이다. 화면에는 늙은 소나무가 ‘수(壽)’자 형태를 이루며 꿈틀대고, 그 아래에는 불로장생의 상징 영지버섯이 그려져 있다. 그림 우측에는 ‘을해추겸재팔십세작(乙亥秋謙齋八十歲作)’이라는 낙관이 적혀있고, ‘완백(完伯)’이라는 인장이 찍혀 있는데, 을해년은 1755년으로 정선이 80세가 되던 해다. <노송영지도>는 노년의 작품으로 믿기지 않을 만큼 소나무가 기운차게 그려져 있으며, 해를 거듭해 온 그의 노련한 필력이 소나무의 동세를 더하고 있다. 소나무를 화면에 꽉 채워 그리다 못해 가지 끝을 그리지 않은 구도는 소나무의 기운이 화면 밖으로 뻗어나가는 듯하여 보는 이를 압도한다. 영지는 소나무의 기운을 받은 듯 소나무와 같은 방향으로 그려져 감상에 소소한 즐거움을 준다. 이 그림은 송암미술관을 인천시로 기증하기 4년 전인 2001년에 경매 금액 최고가를 갱신한 일화를 갖고 있기도 하다.

유물 설명 윤현진(송암미술관 학예연구사)

인천 골목길, ‘견고 싶은 길’로 변신 우리 시가 ‘견고 싶은 길’로 다시 찾고 싶은 골목길’을 만들기 위한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2차 사업에 착수했다. 시는 지난 달 13일 송도 미추홀타워에서 착수보고회를 열고 남구 호미마을, 남동구 만의골, 강화군 대룡시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7월까지 총 2억 원을 들여 지역 특색을 살린 시설물의 디자인을 개선, 문화관광 명소를 만들 계획이다.

작년 1차 사업에서는 중구 신포시장 골목디자인 개선, 동구 송림6동 ‘할터마을’ 로고 제작, 폐가 잠금장치 개발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문의 시 도시경관과 ☎440-4792



INSIDE

문화관광해설사
예약 전용 사이트 오픈

친절은 높이고, 민원은 줄이는
‘쌍쌍 스마일 택시’

‘2015 대중교통 시책평가’ 1위

청라·영종지역 도서관 3곳
운영시간 확대

강화도, ‘2018년 올해의 관광도
시’에 선정

문화관광해설사 예약 전용 사이트 오픈 우리 시가 문화관광해설사 제도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문화관광해설사 예약 전용 사이트’를 오픈했다. ‘문화관광해설사 예약 전용 사이트(culture-tour.incheon.go.kr)’를 이용하면 인천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도심권(인천 시내)에 대한 문화관광해설을 사전에 신청할 수 있다. 문화관광해설사 신청은 희망일 3일 전까지 예약하면 된다. 해설은 무료이며, 월요일과 관광지 휴관일에는 해설을 하지 않는다.

문의 시 관광진흥과 ☎440-4055

친절은 높이고, 민원은 줄이는 ‘쌍쌍 스마일 택시’ 우리 시는 택시 서비스 개선방안을 담은 ‘쌍쌍 스마일 택시’ 시책을 2018년까지 시행해 택시 교통 관련 불편 신고를 50%까지 감축할 계획이다. 교통 불편신고가 적게 접수된 회사와 개인택시 기사에는 지도점검 유예, 친절 회사·기사 표창, 카드수수료 100%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반면 불편신고가 빈번하게 접수된 회사와 기사에는 특별점검 실시, 6개월 이상 통신료·콜비·카드수수료 지원 중단 등의 페널티를 물릴 계획이다. 한편 2014년 인천시에 접수된 불편 신고는 택시 기사의 불친절 1천26건, 승차거부 969건, 부당요금 829건, 교통카드 사용 거부 47건 등 총 4천53건이다.

문의 시 택시화물과 ☎440-3825

‘2015 대중교통 시책평가’ 1위 우리 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2015 대중교통 시책평가’에서 6대 광역시 중 1위를 기록했다. 우리 시는 전국 16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81.68점을 기록, 특별시·광역시로 구성된 A그룹 중 서울시에 이어 2위, 광역시 중에서는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7년 대중교통 시책평가 도입 이후 최고 성적으로, 성과금 1억5천만 원도 확보하게 됐다.

인천시는 대중교통시설 인프라는 광역시 중 가장 열악한 도시 중 하나로 평가됐지만 대중교통 행정·정책 지원체계, 대중교통 서비스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시는 버스정보시스템 확대 운영, 버스준공영제 시행,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 수인선 1단계 건설, 청라~강서 광역간선급행버스(BRT) 등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문의 시 광역교통정책관 ☎440-3857

청라·영종지역 도서관 3곳 운영시간 확대 청라호수도서관과 청라국제도서관, 영종하늘도서관의 운영시간이 늘어났다. 지난 1월부터 이 세 도서관은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토·일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단, 어린이자료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정기 휴관일은 청라호수·영종하늘도서관은 금요일이며, 청라국제도서관은 월요일이다. 또한, 법정 공휴일과 임시 휴관일에도 휴관한다. 문의 시 미추홀도서관 청라호수도서관 ☎563-8126

강화도, ‘2018년 올해의 관광도시’에 선정 곳곳에 역사문화 유적이 많아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불리는 강화군이 매력적인 관광도시로 발돋움한다. 강화군이 문화체육관광부의 2018년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올해의 관광都市는 정부가 관광 잠재력이 큰 중소도시를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강화도의 참성단과 고인돌, 외규장각 등 뛰어난 역사문화유산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강화군은 이에 따라 지역의 관광콘텐츠와 관광 기반 시설 홍보에 3년간 국비 25억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문의 시 관광진흥과 ☎440-4041



IMAGE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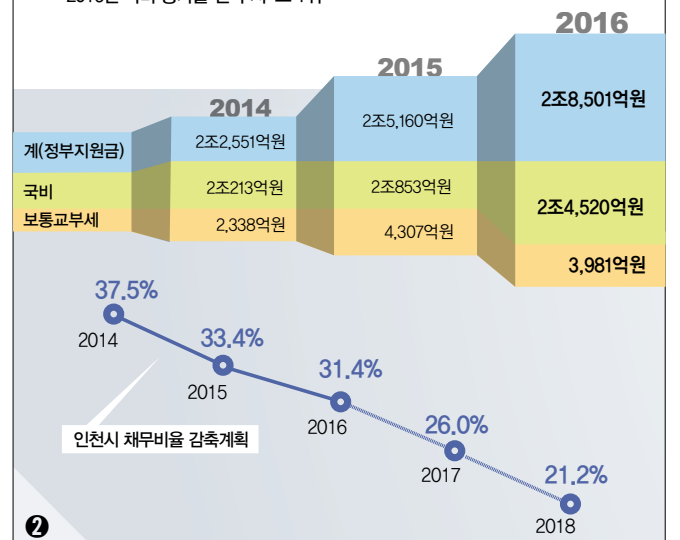
인천은 가난하다?
정부 지원이 적다?

우리 인천,
정말 그럴까요?

올해 역대 최대 ‘국비’
‘교부세’ 2년 연속 4천 억 원 수준 확보!

→ 2016년 국비 증가율 전국 시·도 1위

재정도 3년 뒤면
‘정상’ 전환!



돈은 ‘IN’ 부채는 ‘OUT’!

이제 ‘잘사는 인천’ 만들기 본격 START!

1. 인천 중심 철도망 구축
2. 장애인·저소득층 지원
3. 명품섬 관광 활성화
4. 원도심 재생



‘부채’ 없는 ‘부자’ 도시

“인천에서 살아서 행복해요”
시민이 행복한 인천



COUNCIL
NEWS



INSIDE

인천시의회 올해 첫 회기 ‘시작’

“의정을 직접 체험해요~”

특수목적법인 경영실태
행정사무조사

인천시의원 3명,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의정발전 다짐’ 월미산 산행

시민을 위한 활동 ‘다짐’

교육위원회 인천시 관내 전체
특수학교 방문

인천시의회 올해 첫 회기 ‘시작’

인천시의회가 지난달 22일부터 2월 1일까지 제229회 임시회를 열어 신년 업무보고와 함께 각 상임위원회 일정을 진행했다. 이번 회기의 주요 안건으로는 장애인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도화구역 내 쉼골로 도로폐쇄 반대에 관한 청원, 2017년도 및 2018년도 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 등 20여 건이다.

“의정을 직접 체험해요~”

지방의회 의사결정 과정과 토론 문화를 체험하는 인천시의회 의정아카데미가 3월부터 열린다. 인천시의회는 올해 총 28개 학교, 1천50명을 대상으로 의정아카데미를 운영할 예정이다. 특

히, 올해는 참가자 모두가 의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강화됐다. 참가자가 직접 진행하는 모의의회 외에 본회의 방청, 의원과의 만남, 의정 특강 등이 마련된다. 시의회는 올해 한 학기 동안 시험 부담 없이 적성 개발과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자유학기제’가 전면 실시되기 때문에 의정아카데미를 신청하는 학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특수목적법인 경영실태 행정사

무조사 인천시의회 ‘인천시 재산 매각 상황과 특수목적법인 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8일부터 20일까지 센트럴파크호텔, 송도 국제화복합단지개발, 송도아메리카타운·인천아트센터·오케이

센터를 대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다. 시의회는 관계기관과 공사사 임직원 등 43명에 대해 증인 출석을 요구했으며, 조사특위는 이번 조사에서 SPC에 출자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도시공사의 SPC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또 SPC의 사업 추진과정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지적된 문제의 대책 마련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인천시의원 3명,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지난달 7일 서울 영등포아트홀에서 열린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시상식에서 인천시의회 박승희 제1부의장과 이용범 제2부의장, 교육위원회 이강호 의원 등이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광역의원 우수상)을 수상했다. 박승희 제1부의장은 SK인천석유화학 주민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활동에 이어 그동안 28개 공약사항을 무리 없이 추진한 것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용범 제2부의장은 대중교통 출·퇴근을 통해 시민 목소



리를 제감하며 교육복지 예산확대 등 12개 공약사항 중 이미 10건을 마쳤다. 또 이강호 의원은 전국 최초로 교복 구매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32건의 공약사항 중 25건을 끝냈다. 한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 2008년부터 지방자치 의원을 대상으로 매년 선거공약 사항 이행과 주민소통 등 자체평가표를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의정발전 다짐’ 월미산 산행

인천시의회는 지난달 1일 중구 월미산에서 시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이 함께하는 의정발전 다짐 산행을 했다. 의회 직원들은 경제적으로 불안했던 지난해를 보내고 영리하고 피가 많은 붉은 원숭이 이해를 맞아 한마음으로 인천시 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기원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노경수 의장은 “새해에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의회가 앞장서서 노력하자”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활동 ‘다짐’

인천시의회는 지난달 6일 시의회 중앙홀에서 의회의정에 관계된 주요 관계 인사들을 초청해 2016년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시청·교육청 간부 등 총 110여 명이 참석해 새해 인사 및 환담을 나누고 앞으로 바람직한 의정운영 방향을 새롭게 모색하는 등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경수 의장은 “시의회는 시민 여러분과 약속한 「안전, 봉사, 신의」 3대 실천전략을 지속해서 전개하겠다”며, “인천의 가치 재창조와 시정의 주요현안의 추진을 위한 시 집행부와 동반자적 입장은 물론, 의



회 본연의 역할인 감시와 견제활동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위원회 인천시 관내 전체

특수학교 방문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5일부터 2일간 관내 공사립 특수학교 7개 학교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서 이번 방문은 특수학교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현안사항을 청취해 인천의 특수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위원회 의정활동에 활용하기 위해서 실시되었는데, 25일에는

부평구에 소재한 4개의 사립학교인 성동, 혜광, 예림, 은광학교를 방문했고 26일에는 공립학교인 미추홀학교, 연일 학교, 인혜학교를 방문했다. 최용덕 교육위원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교마다 학생들을 위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번 방문에서 보고 느낀 점들을 향후 교육위원회 의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해 특수학교 학생 및 교직원들이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모니터 우수제안 채택

인천시의회는 지난 달 28일 2015년 11월과 12월 중 의정모니터 제안서 29건을 심사한 결과 우수 제안 5건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제안 중에는 자전거로 통학하는 학생들에게 교통안전교육 및 지도를 통해 안전의식을 높여 사고를 예방하자는 ‘자전거로 통학하는 학생들의 보호구 착용 시급’이 최고 점수를 받았다. 그 외 기타 우수 사례는 시의회에서 격월간 발행하는 의회저널에 게재되어 있다.



※‘의회저널’ 구독안내

더욱 자세한 의정활동 소식은 ‘인천의회저널’에서 확인하세요. 신청하는 모든 분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역사, 관광, 지역소식까지 생생한 정보가 가득합니다.

문의 440-6135~8

홈페이지 www.icouncil.go.kr





INFO BOX

인천의 문화 행사, 공연, 강좌 등
알찬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16년 직업체험교실 ‘가자 키자니 아로’ 참가자 모집

인천청소년수련관은 2016년 직업체험교실 ‘가자 키자니아로’에 참가할 초등학생을 모집합니다.

일시 2월 23일 오후 1시 30분~9시 30분
장소 키자니아(서울시 송파구 소재)
교통 45인승 대형버스
대상 인천 관내 예비 초3~초6 36명
신청기간 2월 1~12일 선착순 마감
신청방법 이메일(i-youth@insiseol.or.kr), 팩스(465-6826)
참가비 3만2천원(석식, 간식, 체험비 등 포함)
문의 722-9155

시립박물관 개관 70주년 기념 추억의 사진 공모

인천시립박물관이 개관 70주년을 맞아 박물관에 소중한 추억이 깃든 시민들의 사진을 찾습니다.

공모대상 1946년 개관 이후~현재까지 시립박물관과 추억이 담긴 사진
접수기간 1월 19일~3월 4일
응모 개수 및 규격 제한 없음
응모방법 시립박물관 홈페이지(museum.incheon.go.kr)에서 응모신청서를 다운받아 기재 후 응모사진과 함께 제출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문의 440-6744

인천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

우리시는 장애인을 위한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운영합니다.

지원대상 장애인
지원내용 치과진료비 지원
•장애인을 대상으로 비급여 본인부담 진료비에 대해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 진료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본인부담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 비급여 본인부담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치과영역 경증장애인 : 비급여 본인부담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설치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 길의료재단 길병원 치과센터 1, 6층
문의 건강증진과 440-1594

저소득층 디지털방송 시청 지원 안내

우리시는 저소득층에게 디지털방송 서비스 요금부담을 경감하고, 디지털TV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알선합니다.

신청대상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 중 일부(수신료 면제 대상), 시청각장애인
신청기간 1월 4일~12월 31일
전화접수 국번 없이 124(디지털 방송 시청지원센터)
홈페이지 www.digitaltv.or.kr(디지털마당)
※ 2011~2012년 저소득층 디지털TV 구매 보조 정부지원을 받은 가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저소득층 디지털방송 시청 지원안내

저소득층에게 디지털방송 서비스 요금부담을 경감하고, 디지털TV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알선합니다.

신청 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
-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입자, 한부모가족, 무선방송 시청자가구, 장애인등 및 장애인등 가족을 지원 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중 일사(수신료 면제대상), 시청각장애인

※ 11 ~ 12년 저소득층 대상자가 12월 31일 이전에 신청한 가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저소득층 전용 디지털TV

고급	중급	가성
31형LED(1사)	24형LED	20.5,000원
25형LED(2사)	19형LED	275,000원
30형LED(3사)	22형LED	320,000원
30형LED(4사)	24형LED	350,000원
40형LED(5사)	32형LED	540,000원
42형LED(6사)	32형LED	527,000원

디지털방송 혜택 선택 지원

선택	방송혜택	지원내용
1번	차상위 계층수신	방송 - 셋톱 박스 1대 및 셋톱 박스
2번	계좌입금 TV	저소득층 저소득층 및 저소득층
3번	셋톱 박스, (4사, 5사)	유선방송(지상)
4번	유선방송 (지상방송(지상))	유선방송(지상)

신청방법 및 기간

- 전화접수 : 국번없이 124 (디지털방송 시청 지원센터)
- 홈페이지 : www.digitaltv.or.kr (디지털마당)
- 신청기간 : 1월 4 ~ 12월 31 (총 신청기간: 2011. 2월 1일 ~ 2012. 12월 31일)

연수문화원, 불학기 문화학교

연수문화원은 성인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불학기 문화학교를 운영합니다.

교육기간 3월 2일~5월 28일(3개월)
접수기간 2월 1일부터 선착순 마감
장소 연수문화원
문의 821-6229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

- 시각예술 : 생명융합과 실험교실, 창의로봇, 도자기찰흙놀이, 그림이 있는 토요일 외
- 공연예술 : 토요기타, 요들송, 우쿨렐레, 플루트 외
- 전통예술 : 토요가야금, 대금&소금, 해금 외
- 인문통합예술 : 청소년 독서토론&논술, 미술로 생각하기, 사고력 융합독서 외

성인 프로그램

- 시각예술 : 캘리그라피, 구도가 좋은 사진 찍기, 색연필야생화, 생활도자기, 손뜨개 외
- 공연예술 : 바이올린, 우쿨렐레, 하모니카, 가곡, 난타 외
- 전통예술 : 사물, 서예, 대금&소금, 민요, 가야금, 한지, 해금 외
- 인문통합예술 : 엄마가 먼저 알아야할 한국사 외
- 전문인력과정 : 다도와 티 소믈리에, 발효음식과 효소 이야기, 노래강사 전문지도자과정, 독서와 글쓰기 지도 외

한누리학교(다문화학교) 신입생 모집

초·중·고 통합 기숙형 다문화학교 인천한누리학교에서 2016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단위 인천 및 전국

입학 자격 중도입국 자녀, 외국인가정 자녀, 국제결혼가정 자녀, 난민 등 다문화가정 자녀

학교 특성

• 학력인정 : 초·중·고 학력 인정

• 교육과정 : 일반학교 교육과정 50% + 특성화교육과정(한국어, 한국문화 등) 50%

학생 정원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계
	다담돌반(초등)	1	2	3	4	5	6	계	다담돌반(중·고)	1	2	3	1	2	3	계	
학년																	225
학생 정원(명)	15	15	15	15	15	15	15	105	15	15	30	15	15	15	15	120	

※ 정원에 여유 있는 경우 수시입학 가능, 학생 수에 따라 중학교 학급 조절 가능

문의 442-2102~9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무료 부모교육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스마트폰에 중독된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습관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을 제 공합니다.

모집기간 연중(선착순 접수)

대상자 학교 및 기관에서 신청, 학부모 25명 이상

비용 전액 무료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 서포터스 모집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는 위해식품의 모니터링, 식중독 예방 캠페인 지원, 기타 홍보 활동 및 대민활동 참여를 위한 서포터스를 모집합니다.

모집대상 인천시민 30명(어린이부터 어른 신까지 모두 가능)

활동기간 2016년 2~12월

활동내용 위해식품의 모니터링, 식중독 예방 캠페인 지원,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 홍보활동 및 대민활동 참여

지원혜택 서포터스 임명장, 캠페인 참여시 봉사시간 지급

문의 043-428-5990



INFO BOX

인천의 문화 행사, 공연, 강좌 등
알찬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16 상반기 어린이연극학교 참여자 모집

부평문화재단은 어린이 연극학교 프로그램
에 참여할 초등학생을 모집합니다.

- 프로그램일정** 2월 27일~7월 9일, 매주 토요일 오후 2~4시(총 20회 과정)
- 공연일시** 7월 9일 오후 4시 / 달누리극장
- 모집일정** 2월 15~24일
- 장소** 부평아트센터 대연습실(지하 2층)
- 모집인원** 초등학교 40명(2~3학년 20명, 4~6학년 20명)
- 참가비** 20만원(공연준비금 7만 원 별도)
- 문의** 500-2073, www.bpcf.or.kr

2016 베트남 건축건설 박람회 참가업체 모집

우리는 인천경제통상진흥원과 공동으로
관내 중소 제조업체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
해 ‘2016 베트남 건축건설 박람회’에 참가
할 업체를 모집합니다.

전시회 개요

- 개최기간 : 6월 22~26일 5일간
- 전시장 : 호찌민 / Saigon Exhibition & Convention Center
- 전시 규모 : 3만㎡ / 18개국 800개사 참가 / 42만여 바이어 관람
- 전시품목 : 건축 / 건설, 건자재, 건축디자인, 실내장식, 데코레이션, 냉난방, 보안 / 소방, 산업기계, 장비 등
- 주최 : AFC International Exhibition Fair Corp.
- 신청자격** 인천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한 중소기업체
- **신청기한** : 2월 15일까지
- **문의** : 440-4283(bizok.incheon.go.kr)

청소년자원봉사단 ‘트레이스’ 단원모집

인천시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자치활동 청
소년자원봉사단 ‘트레이스 13기’ 단원을 모
집합니다.

- 모집대상** 인천 관내 중고 청소년 50명(기
존 30명, 신규 20명)
- 모집기간** 2월 1~26일
- 기존단원 접수기간 : 2월 1~12일
- 신규단원 접수기간 : 2월 15~26일
- 접수방법** 이메일, 팩스, 방문접수 가능
- 이메일 : i-youth@insiseol.or.kr
- 팩스 : 465-6826
- 확정명단발표** 2월 29일, 수련관 홈페이지 공
지(www.insiseol.or.kr)
- 발대식** 3월 5일 예정(필수참석)
- 활동내용** 문화예술행사 진행스텝(자체행사
기획 및 진행), 환경·시설 보전활동,
지역사회개발활동(모내기, 벼베기
활동), 수련관 홍보 및 부스 운영 등
- 문의** 722-9155

인천시민사이버교육센터 신규 강좌 오픈

인천시민사이버교육센터가 시민의 꿈을 실현하는 디딤돌 역할을 위해 한층 강화된 최신 외
국어, 자격증 교육 과정을 오픈합니다.

- 사이트명** 인천시민사이버교육센터(www.cyber.incheon.kr)
- 학습기간** 365일 언제나 무료 수강신청 및 학습
- 교육대상** 누구나(인원 제한 없음)
- 교육과정**
 - 외국어 :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러시아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스페인어, 아랍어, 이탈리아어, 태국어, 터키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한국어능력시험
 - 자격증 : 공인중개사, 농산물품질관리사, 주택관리사(보), 직업상담사2급, 행정사, 정보처리기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한식조리기능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 사회복지사1급,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전산세무회계
 - 소양·취미 : 안전, 건강, 인천역사, 자원봉사 등 107개 과정
- ※수료자(진도율 60% 이상) 중 추첨을 통해 매월 30만원 상당의 경품이벤트 실시
- 모바일서비스** m.cyber.incheon.kr
- 문의** 440-7674~5

2016년 직업교육 훈련생 모집

우리시에서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해 산업체와 연계한 실무위주의 교육을 실시하
고, 교육수로 후에는 취업을 알선해 드립니다.

인천인력개발원

- 신청방법 : 온라인(ic.korchamhrd.net/) 신청 또는 방문
- 교육문의 : 인천인력개발원 기업협력처 810-6596~7

인하대학교 직업훈련센터

- 신청방법 : 온라인(hrd.inha.ac.kr)
- 교육문의 : 인하대학교 직업훈련센터 860-9211~13, 9215, 71~3

한국폴리텍 II 대학 인천캠퍼스 산학협력단

- 신청방법 : 이메일(5102126@naver.com) 및 팩스 519-6169
- 교육문의 : 한국폴리텍 II 대학 인천캠퍼스 산학협력단 510-2121/2339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

- 신청방법 : 온라인(www.nic.ac.kr)
- 교육문의 : 한국폴리텍 II 대학 남인천캠퍼스 산학협력처 450-0371~3

‘찾아가는 체험 스튜디오’ 운영

시청자미디어재단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는 시민들이 아나운서, 기상캐스터, PD, 카메라맨 등
이 되어 직접 방송제작 과정을 체험하는 미디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운영기간** 2~6월 수요일, 금요일
- 운영장소** 신청 기관 및 단체
- 소요시간** 3시간(준비 시간 포함)
- 체험대상** 모든 시민(연령, 국적 제한 없음)
- 체험비용** 무료
- 체험내용**
 - 뉴스제작 체험 : 아나운서, 기자, 기상캐스터 등 방송 직종 역할을 맡아 생방송처럼 직접 뉴스를 제작 해보는 체험
 - 라디오 프로그램 체험 : PD, 진행자, 엔지니어 등 라디오 직종 역할을 맡아 생방송처럼 직접 라디오 프로그램을 제작 해보는 체험
 - 애니메이션 더빙 체험 : 성우 역할을 통해 직접 애니메이션에 목소리를 입혀보는 체험
- 신청방법**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공식 블로그(blog.naver.com/incheoncomc)를 통한 접수
- 신청기간** 2월 14일까지
- 문의** 722-7926

인천가정법원 및 등기국 개원 안내

3월 1일자로 인천 남구 소재 옛 법원 부지
에 인천가정법원 및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이 개원·개청합니다.
이에따라 인천지방법원의 가사·소년·가족관
계등록 업무가 신설 인천가정법원으로 이
전하고, 관내 등기과·소(강화등기소 제외)
가 등기국으로 통합·이전합니다.

- 청사위치 : 남구 경원대로 881 구)법원·검찰청 청사(석바위)
(지하철 1호선 주안역 하차, 간석역 1번 출구 이용)
- 업무이전일 : 3월 1일
- 인천가정법원 문의 860-1113
-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문의 : 1544-0773

2016년 주민등록 일제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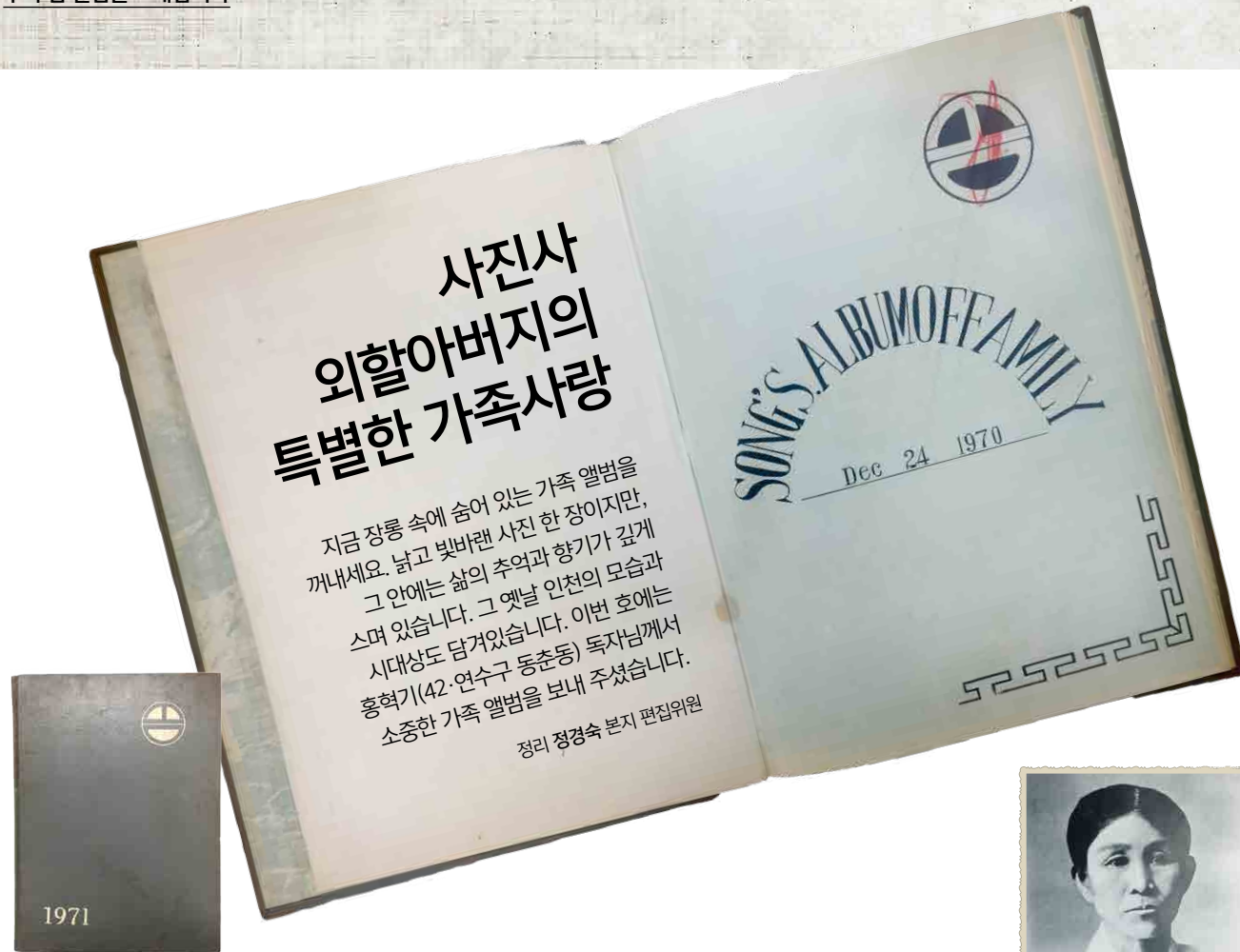
우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해 ‘2016년 주민등록 일제 정
리’를 실시합니다. 조사기간 중 조사반이 각
가구를 방문·조사할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
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조사기간 1월 15일~3월 16일

중점 정리 내용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
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
자 등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자진 신고 시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과태료 감경

문의 및 신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



12월 24일, 1970년 크리스마스 때
외할아버지가 만든 아주 특별한 가족 앨범이 탄생했다.
꼭 제대로 만든 학교 앨범 같다.

가족 앨범 공모를 낸 후, 참여하고 싶다는 독자님의 첫 전화가 왔습니다. 홍혁기(42·연수구 동춘동)님은 어머님께서 귀한 앨범을 간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6,70년대 사진관을 운영하던 작은 외할아버지께서 평소 가족들 사진을 찍어 한 권의 앨범으로 정성스럽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역시나 학교 앨범 부럽지 않은, 아니 작품이라고 말해도 될 근사한 가족 앨범이었습니다. 독자님은 중구 인현동에서 태어나 줄곧 인천에서 살아왔습니다. 친가 쪽은 고향이 인천이고 외가 쪽은 이북에서 내려와 인천에 터를 잡았다고 합니다. 앨범을 만드신故 송창민 할아버지는 북에서 피란 왔기에 그 누구보다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애뜻했습니다. 사진관을 운영하는 틈틈이 가족들을 사진으로 남겨 놓으셨습니다. 당신의 할머니부터 아래로 4대를 담으셨습니다. 송 씨 일가가 대를 이어 이 땅에 뿌리내리길 바라는 마음이 애뜻하게 묻어납니다. 할아버지는 1988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의 특별한 가족의 사랑이 담긴 앨범을 함께 들여다봅니다.



故 고지명 할머니는 아들, 손자들과 함께 인천으로 피란 와, 남구 송의동 송의철교 가까이에서 살았다. 당시 구멍가게를 했으니 '줄 살았다'. 비너스 조각상, 강아지, 라디오, 마치 지금의 스튜디오처럼 세팅이 완벽하게 돼 있다. 이를 배경삼아 모델만 바뀌가며 온 가족이 사진을 찍었다. 사진은 넷째 이모와 여섯째 이모.

작은 외할아버지의 할머니이신,
故 고지명 할머니.
이북에서 인천으로 와 정착했다.
앨범 속 가족 중에 가장 어르신이다.



다섯째 이모가 박문여고에 다니던 시절,
학교 시계탑 아래서 찍은 사진.



인천사람 아니 수도권에 사는 사람이라면 다들 그렇듯, 가족 앨범 한편에는 반드시 송도유원지사의 추억이 깃들어 있다. 사진은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그리고 넷째 이모



홍혁기님은 이모가 여섯 분 있다. 사진은 가장 큰 이모가 고등학교 시절 약사사에 소풍 갔을 때다. 이모는 파독 간호사로 한국에서 온 근로자와 결혼해 지금 독일 함부르크에 산다.



헤어스타일 하나에도 6, 70년대 시대상이 담겨 있다.
멋진 배우들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홍혁기 씨의 외할아버지와 둘째 이모의 젊은 시절 모습



마치 영화배우처럼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어머니.
사진 속 배경은 덕적도.

인천시민의 '가족 앨범'을 공모합니다.

인천에서의 추억이 깃든 '가족 앨범'을 공모합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은누리상품권 1만 원 권(15장)을 보내드립니다. 마감은 매월 15일입니다. 반드시 전화주신 후, 앨범을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인천시 대변인실 별실(민원동 2층)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응모하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알려주셔야 접수됩니다.

보내실 곳 우)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대변인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홈페이지 goodmorning.incheon.go.kr
문의 440-8305

어둠 속에서 행복 찾다

글 이석주(인천해광학교 교감)



갑자기 공연장의 조명이 모두 꺼진다. 이윽고 어둠을 가르는 한줄기 조명이 안내인의 팔을 잡고 걸어오는 시각장애 트롬본 독주 연주자를 비춘다. 무대 한가운데 홀로 선 트롬본 주자가 악기를 입에 댄다. 입에 한가득 공기를 머금고 피스에 댄 입술에 서서히 공기를 주입하며 슬라이드를 매끄럽게 밀어낸다. 공연장에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지기 시작한다.

숨죽인 관객들과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어메이징 그레이스(Amazing grace)’ 멜로디를 타고 흐르는 감미로운 트롬본 독주에 귀 기울인다. 독주가 끝날 무렵 한줄기 조명마저 꺼지고, 짙은 어둠 속에서 팀파니 주자의 강렬한 두드림을 신호로 함께 숨죽이고 있었던 시각장애 연주자들이 일제히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연주한다.

영혼으로 연주하는 시각장애 관현악단의 감동적인 멜로디는 관객들의 가슴에 밀려와 마음속 깊이 쌓여 있었던 삶의 찌꺼기를 모두 씻어냈다. 객석 여기저기서 눈시울을 붉히는 사람과 흐느끼는 사람들이 보였다. 카타르시스의 눈물이다. 공연이 이어지는 동안 그곳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찾아볼 수 없었다.

중도 실명하여 삶의 희망을 놓았던 단원, 희귀병을 앓으면서도 의지 하나만으로 살아가는 단원, 점점 시력을 잃어가는 단원... 인천해광시각장애 관현악단에 사연 없는 단원은 없다. 저마다 크고

작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단원들은 어찌 보면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그늘 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힘겨운 삶을 음악으로 이겨내고 긍정의 에너지로 바꾸는 위대한 사람들이다. 2008년에 태동하여 2011년에 창단 연주회를 연 인천해광시각장애관현악단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음악을 통하여 삶의 보람을 안겨 주고 나아가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데 기여하고 있다. 단원들은 음악 재능을 통해 봉사활동도 펼친다. 병원, 호스피스병동, 소록도 등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 안마와 함께 악기 연주 봉사, 요양원 봉사활동을 한다. 시각장애를 갖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재능을 나누는 아름다운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15년 인천해광시각장애관현악단은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인천의 위상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아 ‘자랑스러운 인천인’ 대상을 받기도 했다. 인천해광시각장애관현악단의 목표는 단지 음악을 연주하는 데 있지 않다. 장애인들도 우리 사회에서 건강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삶의 행복을 찾아주며, 나아가 연주를 듣는 이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데 있다. 어둠 속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인천해광시각장애관현악단이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내 가슴에 새긴 한 구절

“오늘은 어제의 내일이다.”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밝은 미래를 꿈꾼다. 그러나 미래는 먼 훗날이 아닌 바로 오늘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가는 비결이다. “오늘은 어제의 내일이다.” 이 말은 늘 같은 일상으로 삶의 진지함을 놓치고 있다고 느낄 때 마다,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도록 힘을 준다.



칸칸마다 ‘희망’ 꽃히길

요즘 우편함에는 편지가 없습니다.

동네 피자집과 치킨집 전단지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간혹 편지인가 열어보면 세금 고지서와 대출 독촉장이 꽃혀 있습니다.

올 한해 취업통지서 등 온 식구가 애타게 기다리는 소식들이

집집 우편함마다 꽃히길 소망합니다.

— 연수구 옥련동에서

글·사진 유동현 본지 편집장